

SBS magazine

www.sbs.co.kr

커버스토리 〈유리화〉 이동건

새 드라마 광복 60년 대하드라마 〈토지〉

월화드라마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

드라마스페셜 〈유리화〉

SBS 미술전시 시리즈 | 서양미술 400년전(展)

12 + 2004 + December + Vol.157

08



시련과 질곡의 운명, 그러나 결코 마르지 않는 생명의 힘

새 드라마 / 광복 60년 대하드라마 <토지>

드디어 대작 <토지>의 완결편을 드라마로 만난다. 동학혁명으로 시작해 일제 강점기를 지나 해방의 시대까지 이르는 질곡의 역사가 울울이 서려있는 우리 문학사의 보물과도 같은 이 작품이 TV와 만남으로써 한의 미학과 삶의 향기, 생명의 존중으로 이루어진 대서사시로 다시 피어날 것을 기대한다.

14



슬픔으로 남을지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너

새 드라마 / 드라마스페셜 <유리화>

정통 멜로드라마에 목말라있던 시청자라면 기대해도 좋을 드라마가 방송된다. 12월 1일부터 슬프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스페셜 <유리화>가 그것. 세 주인공 지수와 동주, 기태가 만들어가는 '삼원색' 사랑이 주요 테마인 이 드라마는 정통 멜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8 광복 60년 대하드라마 <토지>

시련과 질곡의 운명, 그러나 결코 마르지 않는 생명의 힘

14 드라마스페셜 <유리화>

슬픔으로 남을지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너

20 월화드라마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

공부도 사랑도, 뜨겁게 인생을 건다

26 제작발표회 / 특별기획 <봄날>

2005년을 여는 최고의 멜로드라마

28 SBS 창사 14주년 기념 글로벌토크 / 앨고어 전 미국 부통령

"디지털 시대의 핵심가치는 프론티어 정신"

30 SBS 미술전시 시리즈 I / 서양미술 400년전(展)

인간과 예술의 조우, 그 벅찬 만남을 기다리며

34 커버스토리 / <유리화> 이동진

큰 슬픔엔 눈물이 없고 깊은 상처엔 소리가 없다

38 스포트라이트 / <웃찾사> '그런거야' 팀 - 권성호 · 김형인 · 최영수

"우리 정말 뜬 거야, 그런 거야?"

42 스타탄생 / 2004 슈퍼모델

이제 세계를 향해 워킹을 시작합니다!

46 한수진 기자가 만난 사람 / MC 임성훈

"30년이 흘렀어도 나는 여전히 일이 설렌다"

50 일본은 지금

일본인의 숙명과도 같은 '지진예감'

52 이주형의 문화코드

나이든다는 것의 편안함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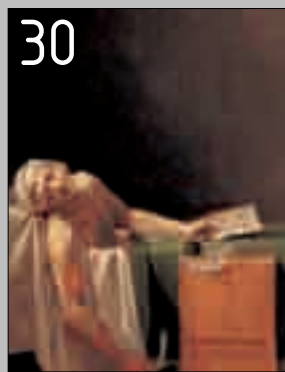
20



34



28



30



46

20 월화드라마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
28 로보필드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30 SBS 미술원서 시리즈! 서양미술 400년전(展)

34 커비스토리 <유리화> 이동건
46 한수원 기자가 만난 사람 MC 임성훈

- 54 은지향의 음악풍경
한 해의 끝자락에서 전경옥을 들으며
- 56 잘먹고 잘사는 법 / 맛있는 리서치
함께 있어 더욱 빛나는 이름이여!
- 58 아주 특별한 여행
낙조와 소나무가 빛어내는 서해안의 운치, 안면도
- 61 SBS 미디어넷 하이라이트
골프채널 · 스포츠채널 · 드라마플러스
- 62 클릭! 인터넷
SBSi & 727 멤버십 소식
- 65 12월의 SBS 영화
SBS 영화특급

- 66 TV & 라디오 편성표
12월의 SBS 주간 편성
- 69 예고 / 2005 신년특집 드라마<내 사랑 토람이>
절망은 희망의 또다른 이름입니다
- 70 Index
<SBS 매거진> 2004년 목차

월간 <SBS 매거진> 2004년 12월호(통권 157호)

· 발행처 | 주식회사 SBS(서울시 양천구 목동 920번지 · 대표전화 02-2061-0006) · 발행일 | 2004년 12월 1일 · 발행 및 편집인 | 송도균 · 주간 | 김재백 · 부주간 | 배성례
· 기획 | 최애라 · 신선휘 · 사진 | 서창식 · 조광희 · 김연식 · 편집 및 제작 | 보빙사(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94-13 · 전화 02-548-0301) · 출력 | 이수그래픽 · 인쇄 | 우성프린팅(031-906-6274)
· <SBS 매거진>은 인터넷(www.sbs.co.kr)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SBS 매거진>에 실린 기사와 사진은 주식회사 SBS의 동의없이 옮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작 / 박경리

극본 / 이홍구 · 김명호 · 이해선

연출 / 이종환

제작 / 정인프로덕션

출연 / 김현주 · 유준상 · 김미숙 · 박상원 · 이재은 · 김유석 · 김혜선 등

방송 / 토 · 일요일 밤 8시 45분

광복 60년 대하드라마 〈토지〉

작가 박경리가 1969년에 쓰기 시작하여 1994년에 탈고한 대하소설 〈토지〉. SBS가 오랜 준비 끝에 2004년 11월, 드디어 대작 〈토지〉의 완결편을 내놓았다.

동학혁명으로 시작해 일제 강점기를 지나 해방의 시대까지 이르는 질곡의 역사가 울울이 서려있는 우리 문학사의 보물과도 같은 이 작품이 TV와 만남으로써 한의 미학과 삶의 향기, 생명의 존중으로 이루어진 대서사시로 다시 피어날 것을 기대한다. 그리하여 시련과 고통을 인내하며 살아온 우리 민족의 끈기와 열정을 아름답게 그려내고자 했던 작가의 투혼을 온전히 전달해주는, 살아 숨쉬는 드라마가 되기를...

시련과 질곡의 운명, 그러나



결코 마르지 않는 생명의 힘

〈토지〉

원작 / 박경리

극본 / 이홍구·김명호·이혜선

연출 / 이종환

제작 / 정인프로덕션

주연 / 김현주·유준상·김미숙·박상원·이재은·김유석·김혜선 등

방송 / 토·일요일 밤 8시 45분



아릿한 감동으로 남은 원작의 추억 대하소설 〈토지〉를 처음 만난 건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 1987년 브라운관을 통해서였다. 최수지가 주인공 서희 역을 맡은 KBS 드라마 〈토지〉는 한반도와 일본, 만주를 중횡무진하며 수백 명의 인간 군상들을 등장시켰다. 밋살스럽기만 한 조준구를 매섭게 꾸짖는 어린 서희의 모습과 성인이 된 서희의 날카로운 눈매는 아직도 기억에 선다.

하지만 진정한 〈토지〉를 느낄 수 있었던 건 7년 전 제대를 앞둔 말년 병장 시절. 남은 시간 좀 때워야겠다고 〈토지〉 1권을 집어든 뒤, 전 5부 16권을 한 달여 만에 머리 속에 빼곡하게 채워넣으며 빠져들었던 그 때였다.

흔히 책 뒷 표지에 쓰이는 ‘미사여구’ 중 하나였던 ‘귀기(鬼氣) 어린 묘사’라는 표현이 그렇게 꼭 들어맞을 수가 없었다.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를 기반으로 한 사건 전개는 아무리 실타래처럼 얽혀도 진한 공감을 자아냈다. 여명처럼 잔잔하게 문자(文字)들을 감싸안는 작가의 순박한 민족에는, 긴박한 사건들을 열심히 눈으로 쫓다가 16권 마지막 장을 덮은 뒤에야 읽는 이의 가슴에 아릿한 흔적을 남겼다.

새로운 캐릭터의 탄생 그 〈토지〉가 완간 후 처음으로 SBS에서 50부작 드라마로 ‘환생’ 한다. 11월 27일부터 주말마다 전파를 타고 있는 것. 〈관촌수필〉, 〈왕룡의 대지〉의 이종환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니 최소한 ‘절반의 성공’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김현주, 유준상을 서희, 길상으로 등장시킨 제작진의 속내는 복잡할 듯하다. 두 배우는 소설 〈토지〉의 완독(玩讀) 여부에 상관없이, 일반 대중에게 익숙한 서희, 길상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체로 제대로 된 ‘모험’의 결과는 ‘거대한 성공’과 ‘비참한 실패’ 둘 중의 하나다. 관전은 바탕이 괜찮은 배우 김현주, 유준상이 선 굵은 연출자 이종환 감독과 어떤 화학작용을 이뤄내느냐에 있다.

土地

지난 11월 5일 오후,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에서 그들을 만났다. 머리 속의 추는 '성공' 쪽으로 기울었다.

"서희는 결코 매섭거나 차갑지 않습니다. 가슴 속의 따뜻한 마음을 감추고 살아왔을 뿐이죠. 진정한 서희의 모습은 말년의 행적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이종한 감독을 비롯, 제작진, 연기자들 모두가 입을 모으는 2004년판 <토지>의 색다른 특징은 역시 '서희'의 캐릭터 구축에 있다. 80년대판 KBS <토지>가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될 수 있었던 건 최수지의 강렬한 서희 연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종한 감독은 이번에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길을 택했다. '온화한 서희'를 선두에 내세운 것이다. 이는 예전의 <토지>와 정반대에 위치한 입구를 통해 들어가는 것이지만 대중들의 머릿 속에 강렬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려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김현주는 처음 기자들을 만나 "1년여 동안 많은 분들이 고생해왔다. 소설 완간 후 처음 만들어지는 드라마인 만큼 최서희가 조금은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30분여에 걸친 대화가 이어지면서 김현주는 좀 더 솔직해졌다.

"서희하면 사람들이 정숙하고 냉정하며 강한 여성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서희도 한 남자의 아내이고, 두 이들의 엄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지요. 이런 부분들이 이 드라마를 통해 더욱 부각될 겁니다."

김현주는 "이종한 감독과 수 십 차례에 걸친 대화 끝에 새로운 서희 캐릭터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는 "머칠 전 대본 연습을 하면서 감독님한테 '너무 부드러운 건 아닐까요?'라며 걱정스럽게 물었는데, '예전의 서희는 머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착하고 발랄한 이미지의 김현주는 현장에서 썩썩했다. 서희의 무게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새로운 서희'의 탄생을 위

〈토지〉

원작 / 박경리

극본 / 이흥구 · 김명호 · 이해선

연출 / 이종환

제작 / 정인프로덕션

출연 / 김현주 · 유준상 · 김미숙 · 박상원 · 이재은 · 김유석 · 김혜선 등

방송 / 토 · 일요일 밤 8시 45분

해 반드시 필요한 자세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제 자신이 자꾸 예전의 서희와 비교하려고 했어요. 기존에 없었던 인물상을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전혀 따라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 느낌과 해석이 우선이죠.”

언제부터인가 유준상은 코믹 캐릭터에 능숙한 연기자로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그는 단막극과 연극 무대에서 진지한 연기로 잔뼈가 굵은 힘있는 배우다. 유준상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토지〉의 길상이란 인물과 그가 한편으로 꽤나 어울린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책을 통해 보면, 길상은 모든 것을 마음으로 끌어안는 인물입니다. 숨겨진 게 너무 많아 보여주는 게 없었죠. 처음에 감독님한테 이런 길상이라면 제가 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했어요. 종종 속내를 드러내는, 다른 길상으로 시청자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일찌감치 〈토지〉 전편을 모두 읽었다는 그는 “〈토지〉는 천천히 읽히는 드라마”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큰 역할인만큼 지금 제 심정을 구구절절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백이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작품의 완성도 높일 오픈 세트 이 드라마는 방대한 오픈세트도 화제거리다. 제작진은 경남 하동과 강원도 횡성에 〈토지〉의 방대한 스케일을 담을 수 있는 무대를 마련했다. 각각 1만여 평 부지에 하동 40여 동, 횡성 80여 동의 건물이 들어섰다. 미술비를 포함한 세트 제작비가 70억원을 넘어선다. 하동 세트는 서희가 조준구의 농간으로 인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용정으로 떠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주로 드라마에 등장한다.

이종환 감독은 “이 곳에서 촬영하면서 수려한 자연환경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횡성 세트는 다양한 나라의 모습을 담고 있다. 진주, 용정, 회령, 하얼빈, 도쿄 등 여러 시가지의 모습이 그대로 형상화돼 있다.

글 / 최승현 조선일보 기자 · 사진 / 서창식

土地

Interview |



이종한 PD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토지> 오픈세트장에서 만난 이종한 감독은 할 말이 많은 듯했다. 지난 1년여간 그는 이곳과 하동 세트를 오가며 거대한 상상의 산물에 형상을 부여하기 위해 치열한 일전을 치르고 있었다. 등산모에 점퍼를 걸친 그는 사람 좋은 웃음으로 기자들을 맞이했지만, <토지>에 관한 이야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자 눈을 빛내며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피력했다.

- 대작의 연출을 맡은 심정이 어떤가?

“한편으로는 영광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다.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소설인 <토지>를 드라마화하는 게 쉬운 일인가? 읽으면 읽을수록 엄청난 깊이와 무게와 넓이를 느낀다. <토지>를 드라마로 만든다는 게 함부로 달려들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

- 이번 드라마 <토지>는 이전의 작품들과 어떻게 다른가?

“박경리 선생님은 작품의 주제를 5부에 가셔야 드러냈다. 이 드라마는 <토지> 완간 이후 처음으로 제작되는 드라마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전의 <토지>는 미완성의 느낌을 줬다. 소설이 주제를 명확히 드러내기 전에 제작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 제작은 얼마나 진행됐나?

“3년여 전부터 기획했고, 1년여 전부터 제작에 들어갔다. 30부까지 초고가 나왔고 제작은 18회까지 진행됐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모두 카메라에 담겨있다.”

- 50부작은 원고지 4만여 장의 방대한 저작을 모두 담아내기에 부족하지 않은가?

“<토지>는 사건이 아니라 인물 중심이다. 그래서 어떤 등장인물을 선택해도 미니시리즈를 한 편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묘사와 성격 구축이 탄탄하다. 이번 드라마에서는 서희와 길상에 더욱 집중하려고 한다. 거기에 웅이, 최치수, 윤씨 부인, 김환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50회 속에 5개 정도의 미니시리즈가 있다고 보면 된다.”

극본 / 박혜경

연출 / 이창순

제작 / 이집프로덕션

출연 / 김하늘 · 이동건 · 김성수 등

방송 / 수 · 목요일 밤 9시 55분



Drama Special | 드라마스페셜 <유리화>

극본 / 박혜경

연출 / 이창순

제작 / 이김프로덕션

출연 / 김하늘 · 이동건 · 김성수 등

방송 / 수 · 목요일 밤 9시 55분

슬픔으로 남을지라도...

또 한 해가 우리 곁을 스친다. 사랑에 빠지고 싶은 계절이다. 이런 느낌에 딱 맞는 드라마가 우리 앞에 왔다. <천국의 계단>의 박혜경 작가가 쓰고, <애인>의 이창순 PD가 연출을 맡은 SBS 새 드라마스페셜 <유리화>다. 정말 만나보고 싶었던 배우들이 나오고, 믿을만한 작가와 연출가가 뭉쳤다. 이 겨울, 가슴 아프게, 때로는 행복하게 다가오는 사랑의 감정을 <유리화>와 함께 만끽해 보는 것은 어떨까?

드라마스페셜 <유리화>

A man with dark hair, wearing a tan flat cap, a brown jacket over a black turtleneck, and blue jeans, is leaning against a brick wall. He is looking off to the side with a slight smile. The wall is made of red and grey bricks. To the left of the man is a white door frame. The ground is covered with some dry leaves.

사랑할 수밖에 없는 너

세 남녀의 삼원색 사랑 ‘유리화’는 빛을 받아 영롱하게 드러나는 교회 창문의 스테인드글라스를 의미한다. 성화가 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듯 세 주인공 지수(김하늘 분), 동주(이동건 분), 기태(김성수 분)가 만들어가는 ‘삼원색’ 사랑이 주요 테마다.

신지수 역의 김하늘은 <로망스> 이후 2년 6개월만에 드라마에 컴백했다. 영화 <동갑내기 과외하기>, <그녀를 믿지 마세요>로 특유의 코믹 이미지를 보여주더니 이번에 다시 본업인 멜로의 여주인공으로 돌아왔다. 눈물나는 사랑 이야기를 정말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란단다.

김하늘은 <유리화>의 지수 역을 제의 받고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마침 슬픈 멜로물에 목말라 있었던 때였다. 웬지 느낌이 좋았다. 상대역인 이동건과 김성수, 연출자 이창순 PD에 대한 믿음도 확실했다.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그동안 알게 모르게 쌓인 코믹 이미지. 영화를 통해 지금껏 몸에 밴 코믹 연기를 버리고 깊은 슬픔을 간직한 지수로 거듭나는 게 관건이다.

상대역인 이동건이나 김성수보다 연기 경험에 있어 고참인 그는 촬영 초기부터 무한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늘 내가 현장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선배라는 책임감이 있다”며 “사람들이 날 믿어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일본 고베 로케이션 촬영 때도 매사에 술선수범했다. 빠듯한 일정 가운데서도 제작진이 웃음을 잃지 않은 건 아마도 김하늘의 미소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수는 잡지사 사진작가다. 당차고 똑똑한 척하지만 알고 보면 순진하기만 해서 실속은 하나도 없는 인물. 그래도 희망과 웃음을 잃지 않는다. 어린 시절 같은 반 보육원 친구인 동주, 기태와 삼총사가 되지만 동주의 느닷없는 죽음으로 그의 유년기는 끝난다. 그 후 기태와 연인 사이가 되지만 12년만에 일본인이 되어 나타난 동주를 보고 조금씩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게 된다.

우정과 사랑 사이에서 이동건은 <파리의 연인>의 수혁에서 벗어나 <유리화>의 한동주로 복귀했다. <파리의 연인> 이후 당분간 드라마는 안하려고 했는데 <유리화>의 대본을 보고는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출연을 결정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웬지 아픔이 있는 캐릭터 표현에 자신이 있다. 그런 점에서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졌다가 어려서 일본으로 귀화한 한국인 동주 역할은 그에게 안성맞춤이다.

처음에 이동건은 무엇보다 역할 설정에 고심했다. 어떻게 하면 수혁에서 한 단계 변신한 동주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고민이었다. 그래서 나온 게 ‘동주 패션’. 잘못 맨 것처럼 보이는 빼박한 넥타이, 허리가 잘록한 정장, 발목을 감싸는 부츠 등 이탈리아 풍의 패션이 그것. 동주 패션은 벌써부터 히트 예감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동건에게도 부담은 만만치 않다. 전작 <파리의 연인>은 이동건으로선 기회였던 동시에 이젠 넘어야 할 벽이기 때문이



일본 고베에서의 첫 촬영 현장. 연기자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많은 일본 팬들이 몰려들어 일본에서의 한류 열풍을 실감나게 했다.

다. “앞으로 가수 이동건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말에서 그의 아무진 각오를 읽을 수 있다.

한동주는 ‘아주보험’의 후계자이자 마케팅본부장. 감정보다 논리가 앞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대화로 최선책을 이끌어내는 유연한 인물이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지만 부모를 원망해 본 적이 없고, 자신을 밀어내기만 하는 세상을 향해 핏대 한번 세워본 적 없다.

‘그 사건’ 후 12년만에 ‘유이치’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돌아와 기태와 지수를 찾는 동주.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과거를 되찾지만 기태와의 우정은 그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한다.

친구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동시에 갖고 있는 박기태 역은 김성수가 연기한다. <풀하우스>에서 잠재력을 인정받은 김성수는 이번 드라마에선 본격적인 사랑과 우정 이야기를 들려준다.

기태는 동주와 지수를 한결같이 사랑하는 인물이다. 동주는

극본 / 박혜경

연출 / 이창순

제작 / 이집프로덕션

출연 / 김하늘 · 이동건 · 김성수 등

방송 / 수 · 목요일 밤 9시 55분

‘장기이식’이라는 고리로 연결된 친형제 같은 친구고, 지수는 마음 속에 숨겨둔 애절한 사랑의 대상이다.

기타는 의리와 추진력이 있고 한 번 문 고기는 절대 놓지 않는 승부근성을 갖고 있다. 보육원에 있을 때, 동주는 그런 기타의 속내를 알아주는 유일한 친구였다.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심지어 신장마저도 나눌 수 있었다. 그래서 죽은 줄 알았던 동주가 살아 돌아왔을 때 누구보다 기뻐지만 지수의 웃음을 보면서 사랑의 의미를 새삼 깨닫게 된다.

믿을 수 있는 정통 멜로 이처럼 <유리화>는 정통 멜로의 성격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다. 아마도 박혜경 작가의 손길이 묻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작가 박혜경은 이미 전작 <그들만의

식탁>, <울엄마>, <아주 오래된 사랑>, <천국의 계단> 등을 통해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한 바 있다. 박혜경 작가나 이창순 PD는 모두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모처럼만에 기대되는 드라마가 나왔다. 남은 건 시청자의 몫이다. 12월 1일 밤 9시 55분 첫 전파를 탄 <유리화>는 수 · 목요일 밤 슬프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보여줄 예정이다.

글 / 김인구_스포츠조선 기자 · 사진 / 김연식



Postscript |

이창순 PD

“멜로의 귀재라는 표현은 빼주세요.”

<유리화>의 연출을 맡은 이창순 PD는 철저히 스스로를 낮췄다. 보도자료에 나온 자신에 대한 소개가 못내 쑥스러운 눈치다. 그의 그런 말 속에는 작품에 대한 고민이 배어 있다.

사실 이창순 PD는 자타가 공인하는 멜로 드라마계의 ‘스타PD’다. 지금까지 그의 손을 거처간 작품들의 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준다. <애인>(96년), <신데렐라>(97년), <안녕 내 사랑>(99년), <눈사람>(2003년) 등 대부분이 남녀간의 진한 사랑을 다뤘고,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일부 마니아들 사이에선 ‘이창순표 드라마’라는 말도 생겨났다. 캐릭터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뛰어나고, 대중적인 감각이 탁월하다는 점에서 그의 작품은 독특한 맛을 발산했다.

때문에 <유리화>아마로 이창순 PD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드라마임에 틀림없다. ‘장기이식’이라는 고리로 연결된 두 남자와 이 둘 사이에 놓인 한 여자의 슬프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이런 정통 멜로 드라마를 엮어내는데 그만한 감독이 또 있을까? 유부남과 유부녀, 혹은 형부와 처제 등 금기된 사랑마저 오히려 아름답게 그려낸 연출력이 말해주듯 <유리화>에서 그가 다시 한 번 보여줄 풍부한 감성에 무조건적인 믿음이 간다.

물론 부담도 적지 않다. <유리화>가 한국과 일본에서 거의 동시에 방송될 예정이고, 이 점 때문에 일본을 공략하는 첨병같이 소개되는 것이 그렇다. 하지만 그는 ‘이 드라마가 일본에서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대해서는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눈치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시청자들이 그가 풀어갈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느냐다.

시청률 역시 피할 수 없는 부담이다. 이번엔 특히 더하다. 모처럼 젊은 배우들과 함께 젊은 드라마를 만드는데 앞으로 갈길이 구만리 같은 그들에게 실패를 안기면 안된다는 생각에서다. 또 스스로도 시험대 같은 무대라는 각오다. 그래서 기존의 것과 같지만 뭔가 다른 멜로를 보여주고 싶다.

이창순 PD는 배우를 꼼꼼히 아끼는 사람으로도 유명하다. 조재현, 공효진, 오연수 등과 <눈사람>을 만들 때도 그랬다. 이렇게 완벽한 캐스팅을 해놓고도 이 정도 성적밖에 못 낸다는 생각에 연출자로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단다. <유리화>에 임하는 자세도 그때와 똑같다. 그가 만드는 드라마에 항상 따뜻함이 넘치는 이유다.



극본 / 최완규 · 손은혜

연출 / 이장수 · 이진석

제작 / 로고스필름 · 제이에스픽처스

출연 / 김태희 · 김래원 · 이정진 · 김민 · 정승희 · 강남길 등

방송 / 월 · 화요일 밤 9시 55분





월화드라마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

공부도 사랑도, 뜨겁게 인생을 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버드'라 하면 지식과 정의에 대한 열정으로 토론하고 고뇌하며 하나씩 해답을 찾아가는 인재들의 모습과 동일시되는 이름이다.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는 바로 이처럼 학문에 대한 열정을 품고 하버드에 유학한 한국 유학생들의 학구열과 우정, 그리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극본 / 최완규 · 손은혜

연출 / 이장수 · 이진석

제작 / 로고스필름 · 제이에스픽처스

출연 / 김태희 · 김래원 · 이정진 · 김민 · 정송희 · 강남길 등

방송 / 월 · 화요일 밤 9시 55분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 지난 11월 17일, SBS 새 월화드라마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의 기자시사회. 이날 행사에는 미국 현지를 화상으로 연결하여 출연진과 실시간 인터뷰를 진행하는 이례적 순서가 있었다. 제작진이 LA 현지 촬영 중이어서 시사회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곤 하지만, 드라마 발표회 사상 최초의 호사스런(?) 행사임에는 틀림없었다. 새로운 '해외 로케이션 대작'에 거는 SBS의 기대와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했을 것이다.

실제로 방송 전부터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에 방송계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었던 것이 사실. 이미 '해외 로케'란 점 만으로 는 각별한 관심을 끌 수 없는 드라마계의 현실 속에 그만큼 새로운 소재와 형식을 취했다는 점이 어필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직 방송 초반이지만,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연말을 기다릴 드라마 한 편이 나왔다'는 느낌. 역시 그간의 기대와 관심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얘기다. <올인>의 최완규 작가의 탄탄한 대본과 '스타 PD' 이장수, 이진석 프로듀서의 연출 솜씨는 말할 것 없고,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모이는 '하버드'를 배경으로 사랑과 우정의 로망을 펼쳐보일 김태희, 김래원, 이정진, 김민 등 연기자들이 얼마나 매력을 발휘할지가 드라마의 폭발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하버드 로스쿨 아마도 10여 년 전 방송된 <하버드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외화 시리즈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또는 학창 시절 한 번이라도 학문에 대한 열정을 품어본 이라면 누구나 '하버드'를 꿈꾸어 보았을 것이다. 그곳 역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 실제 사는 모습이야 별 다를 바 없겠지만, 그래도 하버드라 하면 지식과 정의에 대한 열정으로 토론하고 고뇌하며 하나씩 해답을 찾아가는 인재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는 바로 이처럼 학문에 대한 열정을 품고 하버드에 유학 간 한국 유학생들의 이야기. 물론 실제 하버드를 졸업한 한인 학생들을 자세히 취재하고 조사하여 구성했다. 그들의 학구열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기 위해서다.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슴에 담고 하버드 로스쿨에 재학하게 된 현우(김래원 분)와 냉정하고 이성적인 완벽주의자 정민(이정진 분). 그들은 그곳에 모인 세계 각국의 인재들과 팽팽한 두뇌 싸움을 벌인다. 제작진은 그 과정 속에서 정정당당하고 논



현우(김래원 분) 하버드 로스쿨에 재학 중.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슴에 가득 품고 있는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고 밝은 청년. 대대로 명망있는 법조인 집안에서 나고 자란 선택받은 소수지만 결코 돈이나 명예, 권력 등에 구속받지 않는 따뜻한 가슴의 소유자.

수인(김태희 분) 아홉 살 때 아버지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밝고 당당한 성격의 하버드 의대생. 강한 독립심의 소유자이면서 오지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의과에 진학한 착한 여자.



리에 의거한 공방을 통한 두 남자의 경쟁과 우정을 보여준다.

그래서일까? 이 드라마엔 화려한 해외 풍광보다는 도서관과 하숙집이 주요 배경으로 등장한다. 여태까지 해외 로케 촬영이 대체로 드라마 내용 전개와는 별 상관없이 관광지나 휴양지 등의 눈요기 거리를 보여주는데 급급했다면, 이번에는 해외 유학생들의 실생활을 보여주는데 중점을 뒀다는 게 제작진의 설명이다.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는 8부까지는 하버드 로스쿨을 배경으로 젊은이들의 불타는 학구열과 사랑을 보여준 뒤, 그 이후에는 한국으로 배경을 옮겨 로펌을 주무대로 한 법정드라마로 변신한다. 사실상 국내에서 제대로 만들어진 법정드라마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후반부에 펼쳐질 치열한 법정 대결에도 큰 기대가 모아진다.

제작진은 법정공방 속에 드라마적 재미를 확보하기 위해 인종간의 문제나 법의학 분야까지 소재를 넓히고 치밀한 이야기 구성에 힘쓰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결국 생동감 넘치는 청춘 캠퍼스물로 뼈대를 잡고 거기에 무게있는 법정 드라마로서 완성도를 더해가고자 하는 셈이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단순히 재미와 환상을 쫓는 트렌디 드라마에 머물게 하지 않겠다는 제작진의 기획력과 도전의식이 엿보인다 하겠다.

러브 스토리 그러나 제목이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인 만큼, 주인공들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 이야기가 드라마의 큰 축을 이루는 것은 물론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연애도 멋지게 할 줄 안다’는 이장수 PD의 신념(?)에 따라 드라마 속 등장 인물들은 학문에 대한 열정만큼 사랑도 매우 격정적으로 엮어낸다.

하버드 의대생인 수인(김태희 분)은 현우와 정민과 삼각관계를 이루는 드라마의 히로인. 그는 아홉 살 때 아버지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강한 독립심으로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여대생이다. 그런 수인의 모습에서 시청자들은 이제껏 보지 못한 연기자 김태희의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게 될 듯.

김태희는 극 중의 수인에 대해 한 마디로 ‘밝고 당당한 여자’라고 밝힌다. 돈이면 뭐든 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지만 실은

극본 / 최완규 · 손은혜

연출 / 이장수 · 이진석

제작 / 로고스필름 · 제이에스픽처스

출연 / 김래희 · 김래원 · 이정진 · 김민 · 정슬희 · 강남길 등

방송 / 월 · 화요일 밤 9시 55분



의료기술이 낙후된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의대에 진학한 착한 여자. 결국 그는 드라마 후반 멕시코와 북한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떠났다가 병을 얻는 바람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설정은 곧 하버드와 순백의 설원을 배경으로 전개되던 영화 <러브스토리>를 떠올리게 한다. 실제 “<러브스토리>의 이미지를 차용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히는 이장수 PD는 수인의 죽음이 단순히 슬픔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뿐만 아니라 드라마 상의 멜로 적 긴장감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수인과 사랑을 나누는 현우 역의 김래원은 자신의 배역에 대해 ‘몸과 마음 모두 젊고 건강한 청년’이라고 말한다. “이제까지 해 왔던 모든 역할의 장점만을 모아 만든 매력적인 캐릭터죠.” 대대로 명망있는 법조인 집안에서 나고 자란 그는 돈이나 명예, 권력 등에 구속받지 않는 따뜻한 가슴의 소유자다.

그리고 여기에 맞서 현우와 사랑과 학업 양면에서 모두 경쟁을 펼치게 되는 정민 역은 이정진이 맡았다. “한번도 남한테 저본 적이 없는 완벽주의자예요.” 냉정하고 이지적인 그가 수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조금씩 변해간다고. 실제 “조금씩 변신해 가는데 연기의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밝히는 이정진. 그에게는 새로운 도전인 셈이다.

이들 출연진 모두가 입을 모아 어려움을 호소한 점은 영어로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것. 특히 SAT에서 만점을 받고 클린턴 대통령의 만찬에도 초대받은 것으로 설정된 정민과 이민자로 살고 있는 수인의 영어실력은 네이티브에 가까워야 하므로 더욱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지만 서로간의 호흡과 노력으로 큰 문제없이 소화할 수 있었다.

한편 이들 외에도 김민과 정슬희가 가세, 드라마 상의 러브스



정민(이정진 분) 한 번도 남한테 저본 적이 없는 완벽주의자이며 현우와는 사랑과 학업 모두 양보할 수 없는 경쟁을 펼치게 되는 숙명의 친구이자 라이벌. 그러나 수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하며 당황하기도 하는 의외로 여린 남자.

토리를 변주한다. 김민이 맡은 유진이는 MBA 출신의 로펌 경영자로 정민에게 사랑을 넘는 집착을 보여주게 된다. 이번 드라마를 통해 처음으로 얼굴을 알리게 된 신인 정솔희는 집안에서 인정한 현우의 정혼자 한슬기 역을 맡았다. 하버드대 생물학과에 재학 중인 재원으로, 밝고 명랑하고 쿨한 성격. 그러나 현우가 수인과 사랑에 빠지면서 마음에 그들이 드리워진다는데...

건강한 드라마 “제가 만든 드라마 중에서 가장 건전하고 건강한 드라마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잘라 말하는 이장수 PD. 과연 <리브스토리 인 하버드>는 이 땅 젊은이들의 불타는 학구열과 뜨겁고 순수한 사랑,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비겁하게 숨거나 치졸하게 굴지 않고 정당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전면에 담은 ‘건강한’ 드라마라 하겠다.

물론 그 속에는 애타는 사랑의 감정과 그로 인한 아픔, 또 학업의 고통과 좌절이 배어 있지만, 결국 끝까지 도전하여 얻은 열매는 그 무엇보다 달다는 사실도 함께 녹아있다. 무릇 리브스토리가 말 그대로 그저 ‘사랑 놀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열매 맺기가 필요한 법. 그런 점에서 <리브스토리 인 하버드>는 정말 멋진 드라마인 셈이다.

글 / 김진희_자유기고가



Co-Producer

이장수 · 이진석 PD

히트작 제조기 이장수 프로듀서와 한국형 트렌디 드라마의 원조로 평가받는 이진석 프로듀서. 지금은 각각 ‘로고스 필름’과 ‘JS 픽처스’의 대표로, 어쩌보면 라이벌 관계라 할 수 있는 이 두 사람이 이번에 <리브스토리 인 하버드>를 만들기 위해 이례적으로 손을 잡았다. 워낙 제작 규모가 크고 해외 로케 등 힘든 점이 많다 보니 작품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단다.

그런데 드라마에 관한 한 아이디어 뱅크라 할 수 있는 그들의 머리 속에 떠오른 소재가 왜 하필 ‘하버드’였을까? 그 이유는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욕망이야말로 누구나의 가슴 속에 숨겨져 있는 일종의 원초적 감정이 아닐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조금은 뜻밖의 이유인 것 같지만, 실제 공부를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면 쉽게 수긍이 갈 듯. 역시 남녀노소 누구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소재라 할 수 있겠다.

결국 드라마 성공의 기초는 얼마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런 점에서 시청자들의 심리를 너무도 잘 아는 두 연출가의 만남은 성공의 보증수표나 마찬가지가 아닐지. 그들의 명성에 어울리는 큰 작품의 완성을 기대해 본다.



2005년을 여는 최고의 멜로드라마

SBS 특별기획 <봄날>

제작발표회

여기, 상처입은 젊은이들이 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버려지고, 사랑을 거부당하고, 왜곡된 욕심에 의해 뒤틀러버린 가족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의 주인공들이 있다.
이들이 사랑을 한다. 2005년 1월, SBS가 선보이게 될 특별기획 <봄날>에서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 사랑이 영원하기를 원하며 사랑을 해나가는 주인공들을 만나게 된다.
어긋난 형제애로, 지켜지지 못한 약속으로, 대답없는 구애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주인공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처입히고 또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 또한 치유로서의 사랑의 의미를 되짚게 될 것이다.



김종혁PD

일부러 선택하려고 해도 쉽게 이룰 수 없는 판이 짜였습니다. 훌륭한 연기자와 개성있는 작가와 함께 일을 하게 돼 영광입니다. 부담과 행복의 감정이 교차합니다. 나름대로 가진 장점을 최대한 발휘해서 올 겨울 따뜻한 멜로를 선보이겠습니다.



고현정

<봄날>이라는 제목이 좋았습니다. 내 인생에도 제2의 봄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에 출연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복귀작으로 영화를 선택하기가 부담스러웠는데 SBS와는 원래 인연이 깊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라마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모래시계>를 기억하는 시청자들에게 실망을 안기진 않을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쉬는 동안에도 제가 대중 앞에 항상 서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연기이고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작 / 별의 금화(일본 NTV)
 극본 / 김규완
 연출 / 김종혁
 제작 / 싸이더스HQ
 출연 / 고현정 · 조인성 · 지진희 등



지진희

역할이 너무 마음에 들어 떨리기까지 합니다. 다음 작품을 만날 때도 이런 떨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배역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로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단편적인 인물을 연기하는 데서 벗어나 여러가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라 기대가 큼니다. <파란만장 미스김 10억 만들기>를 하면서 다음 작품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다른 지진희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조인성

예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함께 연기하고 싶은 여배우로 고현정 씨를 꼽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같이 출연하게 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아무런 말도 못걸었는데, 함께 촬영하면서 연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 연기에 부족한 점은 뭔지 한수 배우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핵심가치는 프론티어 정신”

앨 고어 전 미국부통령이 지난 11월 15일 SBS 창사 14주년 기념 ‘글로벌토크’에 참가, 120분간에 걸친 특별연설과 대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안병영 교육부총리, 김근래 보건복지부 장관, 구평희 한미협회회장 등 정계, 경제계, 학계, 언론계 인사 450여 명이 참석했다.





SBS 창사 14주년 기념 ‘글로벌 토크’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특별연설 및 대토론회

도전과 모험정신 강조 이날 행사에서 고어 전 부통령은 4년 전 조지 부시 대통령과 맞붙은 대선에서 분루를 삼킨 것을 조크로 삼아 말문을 열었다.

고어는 “전에는 (부통령)전용기를 타다가 (보안이 강화된)이제는 신발을 벗어야 비행기를 탈 수 있을 정도”라며 “(대선에서 진 것은) 개인적으론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미국이 단합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라며 당시를 회고했다.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를 주창한 고어는 ‘새로운 문명과 21세기 비전’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거대한 디지털 혁명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며 “한국은 미국보다도 앞서서 이 혁명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국가”라고 극찬했다.

그는 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변화는 커다란 강을 뛰어넘는 것과 같다”며 “상당수는 이 과정에서 물에 빠질 수 있겠지만 도전과 모험정신이야말로 디지털 시대의 핵심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미 대선 이후의 세계 예견 고어 전 부통령은 이날 10여 차례의 질의응답 및 토론을 통해 이번 미국 대선 이후의 세계 정세와 네오콘(신보수주의)의 동향을 비롯 6자회담과 남북문제, 미디어와 정치, ‘도하라운드’와 환경협약 등 전방위적 분야에 대해 해박한 식견과 달변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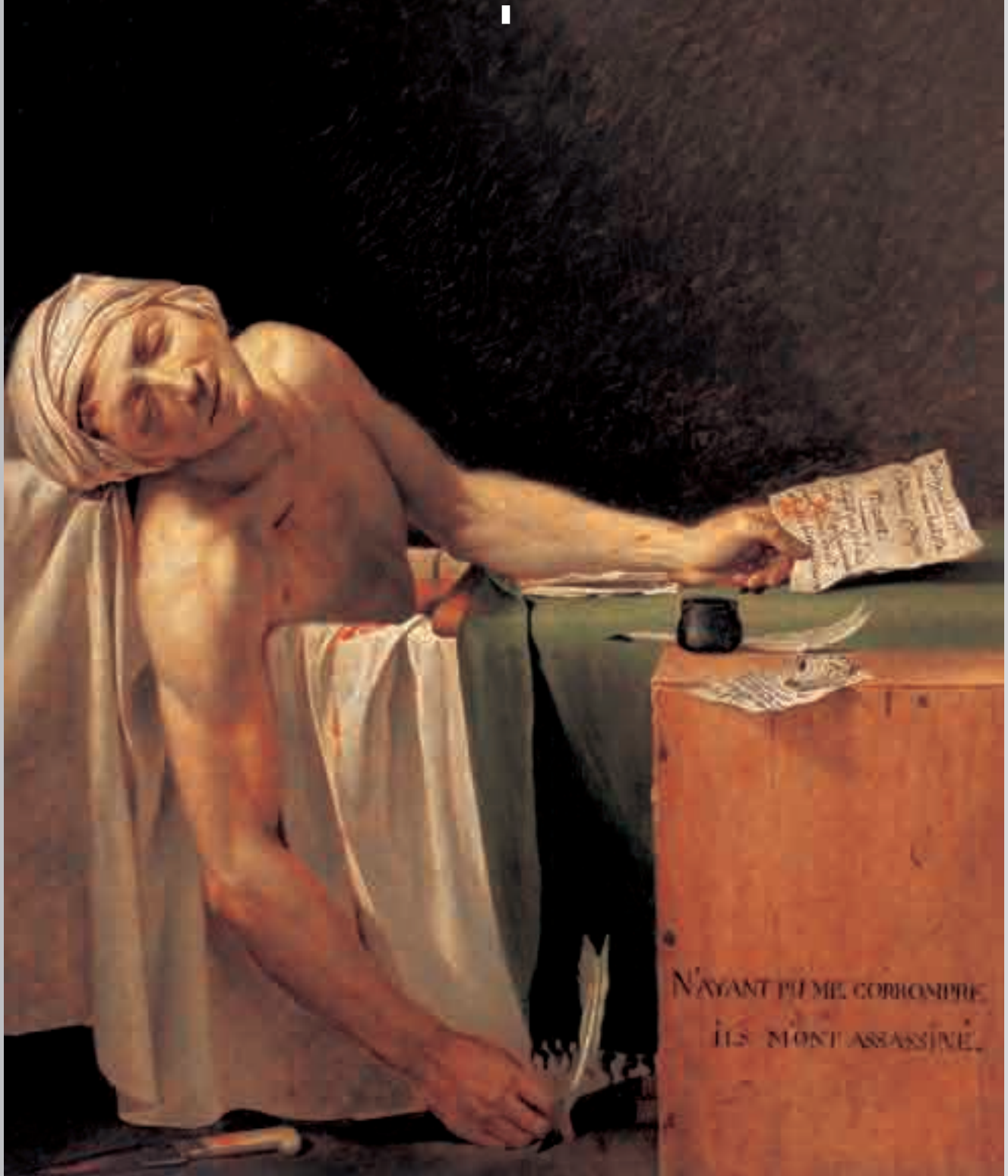
최근 케이블뉴스 채널인 ‘뉴스 월드 인터내셔널’을 인수, 방송 경영자로 변신한 고어는 이날 글로벌토크 행사에 앞서 SBS 목동 신사옥을 방문, 첨단 디지털 방송시스템과 보도국을 둘러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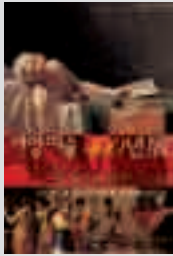
정치에 입문하기 전 테네시 지방지 기자를 7년간 지냈던 고어는 “기자생활을 통해 사안의 우선 순위를 파악하는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얻었다”며 “이는 정치와 비즈니스를 비롯, 모든 분야의 리더십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하기도 했다.

17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는 서양미술의 눈부신 발자취를 드디어 한 걸음에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는 12월 21일부터 2005년 4월 3일까지 SBS 주최로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는 '서양미술 400년전'이 바로 그것이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는 거장들의 작품이 무려 119점이나 공개된다. 프랑스 국립미술관들의 국보급 작품이 이렇게 무더기로 우리에게 선을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자크-루이 다비드 <마라의 죽음>
1793년 경, 캔버스에 유채, 111.3×85.6 cm, 랑스미술관





SBS 미술전시 시리즈 I /

서양미술 400년전(展) - 푸생에서 마티스까지

인간과 예술의 조우, 그 벅찬 만남을 기다리며



폴 고갱 <울타리에 모여있는 브르타뉴 여인들>
1889년, 노란 벨럼지 위에 목판화, 10.1 x 8.5 cm, 랭스미술관

거장들의 기싸움 미켈란젤로가 먼저 직격탄을 날렸다. “티치아노, 그 친구 물감은 제법 쓸 줄 알아도 밑그림 솜씨는 썩이더군.” 티치아노라고 하면 16세기 베네치아의 최고 거장이다. 이런 비난을 듣고 발끈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아니나 다를까, 티치아노는 덤까지 붙여서 본때있게 쏘아붙였다고 한다. “그림쟁이라면 붓으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지. 미켈란젤로, 그 친구는 끌로 그림을 그리나 봐?”

르네상스의 천재 화가들이 코흘리개 초등학생처럼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티격태격하는 것을 보면 우습기도 하지만, 이건 픽션이 아니고 엄연히 실제 상황이다. 미술의 메카 로마를 이끌었던 미켈란젤로는 고대의 조각을 예술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이상으로 생각했고, 베네치아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던 티치아노는 색채의 수수께끼 속에 참된 미술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여겼다.

소묘가 우선이나, 색채가 먼저냐 하는 뻔한 이야기를 가지고 500년 전 라이벌 예술가들이 벌였던 기싸움은 웬일인지 차츰 판이 커져서 급기야 유럽 전역에서 화가 조각가 가릴 것 없이 두 패거리로 쪼개지는데, 그 유명한 논쟁의 결정판이 바로 프랑스 왕립 아카데미의 논쟁이다.

서양미술의 눈부신 성장일기 프랑스 미술, 아니 서양미술이 근대의 문턱을 처음 아장걸음으로 넘어서 마침내 아리따운 신부의 꽃관을 이마에 쓰기까지 걸어온 눈부신 성장일기를 우리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는 12월 21일부터 2005년 4월 3일까지 SBS 주최



아드리안 반 데르 웨르프 <삼손과 데릴라>,
패널에 유채, 40.5×33.7 cm, 랭스미술관



르 냉 <농부들의 식사>, 캔버스에 유채,
106.5×120.8 cm, 랭스미술관(루브르미술관 위탁)

로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는 '서양미술 400년 전'이 바로 그것이다. 전시의 부제는 '푸생부터 마티스까지'이다.

이번 전시의 기획을 훑어보면 정말 간도 크다는 생각이 든다. 교과서에 이름이 줄줄이 올라 있는 거장들의 알토란같은 원작을 140여 점이나 싸들고 왔다. 자크 루이 다비드의 <마라의 죽음>같은 경우는 이번 서울 전시가 첫 해외나들이라고 특별 세정작업을 해서 때도 말끔히 벗기고 복원까지 했단다. 모르긴 몰라도 프랑스에서는 작품 포장하면서 잘 키운 만파 시집 보내는 심정들이었을 것이다. 화가는 프랑스 혁명에 낯선 여자에 의해 비명에 간 주인공 마라와 친구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마라는 욕조 안에 늘어져 있는 모습인데도 영웅적인 비극의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우리를 숙연하게 한다.

프랑스 국립미술관들의 국보급 작품이 이렇게 무더기로 우리에게 선을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의 문화적 역량이 그 정도까지 되었나, 괜히 으쓱해진다.

손에 잡힐듯한 화가의 숨결 우선 17세기 관에서는 블랑샤르의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이 눈길을 끈다. 독뱀에게 가슴을 물린 여왕의 죽음을 시녀들이 발견하는 장면인데, 놀란 비명소리가 그림 바깥으로 들리는 것 같다. 얼핏 이탈리아 바로크의 거장들이 눈앞을 스친다. 화가는 이탈리아 미술전통에서 구약성서의 주제를 다룬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딧'의 구성을 빌려왔을 것이다.

두어 걸음을 떼자 곧 뒤프레누아가 그린 <니코메데스 궁정에서 공주님들 사이에 숨어 있던 아킬레우스>가 발길을 붙든다. 아킬레우스가 빠지면 트로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예언을 듣고 오디세우스가 먼 나라 공주님들 사이에서 여장을 하고 숨어 있는 젊은 영웅을 찾아 나선다는 줄거리다.

그런데 겉모습만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 없어서 오디세우스가 찌를 낸다. 준비한 선물 껍질을 열어 보이자 다들 거울이나 장신구를 하나씩 집어 들고 즐거워하는데, 공주 하나가 이상하게도 선물 속에 숨겨둔 칼을 빼들고는 군침을 흘리더라는 것이다. 그 순간 오디세우스가 옳거니, 아킬레우스의 덫미를 잡아챈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다. 공주님들 사이에 숨을 생각을 하다니, 아킬레우스는 근력과 용맹이 헤라클레스와 비견될 만큼 뛰어났다는데, 얼굴도 아폴론처럼 준수했던 것 같다. 인물구성과 색채 사용을 뜯어보니 푸생의 입김이 잡힐 듯이 느껴진다.

한편, 르네 형제가 그린 <농부들의 식사>는 무척 수수한 그림이다. 전체 색채도 거의 단색조로 처리된 데다, 식탁 위의 차림새도 질박하다. 그러나 하루치의 노동을 마치고, 음식을 나누는 행위만큼 경건한 장면이 또 있을까? 조심스러운 붓의 흐름이 근면한 노동과 성실한 삶에 대한 말없는 헌사처럼 깊은 울림을 준다. 빛과 어둠, 딱 두 가지의 단순하기 짝이 없는 어휘만 가지고 이처럼 아름다운 고백을 털어놓는 것을 보면, 프랑스 미술도 이제 철부지는 지났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쏟아져나오는 신화의 역사 이쯤에서 18세기 관으로 건너가 본다. 아니나 다를까, 신화와 역사, 그리고 초상과 성서 이야기들이 마구 쏟아진다. 이렇게 알뜰하게 챙겨왔으니, 정작 프랑스에 그림구경 하러 간 관광객들이 공치지 않을까, 공연한 걱정이 든다.

아드리안 반 데르 베르프가 그린 <삼손과 들릴라>는 여자 품에서 세상 모르고 잠든 판관 삼손의 비극적인 순간을 재현했다. 그런데 화가는 삼손을 젊은 육욕에게 빠져서 체면을 집어던진 늙은 남자처럼 그렸다. 미술 주제 가운데 유명한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의 전형적인 구성이다. 화가는 머리카락 잘린 삼손이 가엾다기 보다는 부러웠던 모양이다. 사실 이처럼 한 점의 작품에서 여러가지 교훈을 무지개떡처럼 겹겹이 쟁여넣는 것도 근대 미술의 중요한 특징으로 꼽힌다.

10년 미술공부가 한꺼번에 19세기 관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눈이 부시다. 그림들이 햇살을 듬뿍 머금고 있다. 화가들이 어두운 아틀리에를 벗어나서 햇살 눈부신 자연을 예술의 흡입으로 듬뿍 떠서 그림 속에 퍼담은 작품들이다. 모델들도 의례적인 포즈를 취하는 대신 스스로 발걸음을 떼면서 숨을 몰아쉬기 시작한다. 딱딱하기만 했던 소묘와 색채의 오랜 논쟁이 서서히 핏기가 돌고 볼살이 올라붙는가 싶더니 어느새 눈앞에서 싱그러운 미소를 지어 보인다.

책으로 보아서는 10년도 모자랄 미술 공부에 절로 되는 기분이다. 전시를 둘러보면서 반드시 원작을 만나고 작품과 직접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특히 고갱의 크레용 작품이나 판화 연작은 예술가의 유토피아를 꿈꾸었던 가난한 화가가 남긴 사무치는 기억의 흔적들이 실감나게 살아 있어서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한다. 고갱의 종이 작품들은 프랑스에서도 미리 허가를 받고 가지 않으면 접근하기조차 힘들다고 한다.

전시는 어떻게 생각하면 또 하나의 만남이다. 우리는 전시장에서 그림들과 만나고 또 몇 백 년 전 화가들이 밤을 새우며 애태우고 고심했던 문제들과 만난다. 인간과 예술의 만남은 늘 설렘을 준다. 20세기 관에서는 또 무슨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글 / 노성두_서양미술사학자

앙리 마티스 『체즈(1947)』도판12, <어항에서 수영하는 여자>, 1944 ~ 1946년, 스텐실, 45.5 x 65.5 cm, 랭스미술관



샤를 알퐁스 뒤프레누아 <스키로스의 아킬레스>, 1635년 경, 캔버스에 유채, 133.5 x 178.6 cm, 랭스미술관(루브르미술관 위탁)



자크 블랑샤르 <클레오파트라의 죽음>, 1630년 경, 캔버스에 유채, 109.9 x 145.8 cm, 랭스미술관



Musée des beaux arts de la Ville de Reims

큰 슬픔엔 눈물이 없고

깊은 상처엔 소리가 없다

첫 눈이 내린다. 그의 말간 셔츠 위에 무표정한 얼굴에 어둠을 움켜쥔 손에 젖은 눈이 내리는 밤이다. 그가 말한다. “혼자인 게 싫어요. 그렇지만 이 순간 함께 있고 싶은 사람과 같이 있지 못하다면, 그냥 혼자인 게 좋아요.” 애절한 편지 속의 한 문장 같은 남자. 바람에 금세 지워질 것 같아 울지도 못하게 만들던 남자. 소리 없이 다가와서는 손등 위의 눈송이처럼 녹아 물 자국으로만 선연히 남았던 남자. 그가 드라마 〈유리화〉를 통해 또 한번 우리의 가슴 속으로 들어온다. 어둠의 눈발을 헤치고 다시 극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촬영장에서 만난 그의 거침없는 행보가 첫 눈처럼 생생하다.

거침없이 고요한 남자 시트콤 속의 발랄한 대학생, 어린 아내와 알콩달콩 사랑을 새기던 검사 남편, 형을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아픔을 눈 안에 삭여넣던 한 남자. 그가 다시 우리 마음을 흔들 것인가 보다. 새 드라마 〈유리화〉를 통해 그가 보여 줄 인물은 삼각관계의 한 꼭지점인 ‘한동주’.

“자갑고 세상을 비웃는 듯한 모습은 저와 비슷해요. 〈파리의 연인〉에서의 수혁은 아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저와 닮았었죠.”

그는 자신의 얘기를 잘 하지 않는다. 말이 많은 편도 아니다. 좋고 싫음이 얼굴이나 행동에 드러날 뿐이지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는다. ‘마음’이 ‘말’로 전환되는 순간 헛헛해진다는 것, 소중한 감정일수록 입 밖을 떠나면 그 무게를 공기가 조금씩 훔쳐가 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하다. 큰 슬픔 앞에선 눈물이 흐르지 않고 깊은 상처엔 소리조차 낼 수 없다는 진리와의 같은 사실을.

그래서일까, 그의 눈빛은 생생하게 살아 있는데 앓아문 몸 어디에도 벌어진 틈은 보이지 않는다. 그토록 고요한 그가 지금 두 인물의 삶을 살고 있다. 드라마와 영화를 동시에 촬영하고 있어 힘들어 보이는데 오히려 그는 연기에 온 몸을 내던진 지금이 행복하단다.

“두 작품 속 캐릭터가 완벽하게 달라서 다행이에요. 두 인물이 비슷했다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랬다면 두 작품을 동시에 할 생각도 안했을 테지요.”

이번 드라마를 시작하면서 그로서는 부담감도 크고 걱정도 많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사랑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새 작품을 시작한다면 누구라도 힘찬 기합 없이는 첫 발을 내딛지 못할 것이다.

“대중이 저한테 갖는 기대도 크겠지만 제가 저 자신한테 거는 기대가 더 커요. 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면 누가 봐도 좋은 연기일 테니까요.”

차고 뜨거워서 깊은 남자 그는 주변에 사람이 많은 편이 아니다. 가끔 생각나면 연락하고 기회가 되면 만나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도 없다. 아주 극소수의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는 그들을 ‘내 사람’이라고 칭했다.

“제 사람은 자주 보고 자주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갖죠. 나에게 그들이 필요할 땐 언제든 있어주고, 내가 그들에게 필요할 때면 언제라도 달려가는 그런 관계예요.”

차갑기만 한 줄 알았는데 어쩌면 내면이 뜨거워서 몸 밖의 바

〈유리화〉 이동건



람을 차갑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마주앉아 가만히 그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렇게 그의 내면을 탐지하고 있을 때 그가 자신에 대한 얘기를 살짝 풀어놓는다.

“사람 냄새 진하게 나는 역할을 맡아보고 싶어요. 남자 냄새 많이 나는 역할. 그런 면도 저한테 분명 있거든요. 멜로의 아주 멋진 거품으로 저를 감싸고 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제 속엔 양아치 같은 근성도 있거든요. 극한을 달리는 인물들이 저한테는 맞아요.”

이 사람, 뜨거운 남자 맞다. 표정은 차갑기만 한데 쏟아내는 말은 데일 듯하다.

“제가 잘 못 웃는 콤플렉스가 있어서인지 밝고 환하게 웃는 사람들 보면 참 좋아요. 저는 왼쪽 얼굴 밖에 못 웃어요. 그걸 극 중에서 건방진 캐릭터로 잘 써먹기도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입꼬리가 살며시 올라가는 여자들 보면 참 매력적이에요. 여자든 남자든 웃는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배우일 때와 배우 아닐 때를 아는 남자 그는 데뷔 7년 만에 지금의 자리에 섰다. 그것이 갑자기 받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누군가는 한 편의 드라마로 그를 기억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는 7년 내내 우리에게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이렇게 사랑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죠. 그렇지만 거기에 얽매이진 않아요. 영원히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는 알고 있다고 했다. 사람이나 감정 혹은 관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그래야만 나머지 모든 것들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저는 제가 행복한 게 좋아요. 세상에서의 내 위치보다는 내안의 내가 중요해요. 남들한테 멋지게 보이는 것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거든요.”

마냥 입 벌리고 순간의 행복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자, 사랑을 감사히 받고 그만큼 노력할 줄 아는 자, 시간과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현명한 자. 그의 그런 모습은 오히려 거침없이 살고 있기에 주어지는 자유일 것이다. 그에겐 ‘정돈된 거침없음’이 있다.

“연예인이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꾸미지 않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길 창피해 하지도 않아요. 저는 카메라 앞에서 배우이지 집 앞에 담배 사러 갈 땐 그저 담배 피고 싶은 평범한 스물다섯 살의 남자일 뿐이에요.”

게다가 이 평범한 청년은 여행을 좋아하고 낚시를 좋아한다.

“제가 워낙 정적인 사람이어서인지 조용하고 편안한 게 좋아요. 낚시는 참 매력적이에요. 고요함 안에 스틸이 있거든요. 그리고 낚시터는 진솔해질 수 있는 장소죠.”



여유를 음미하며 누리는 남자 서른 살이 훌쩍 넘은 남자에게 서나 들을 법한 이야기들을 자근자근 풀어내는 스물다섯 살의 그가 어설퍼 보이지 않는 건 왜일까? 속 깊은 이 남자, 대체 어떤 사람일까?

“남자가 진짜 여유를 부릴 줄 알 때, 가장 멋진 것 같아요. 그 여유는 자만도 아니고 게으름도 아니죠. 그런 여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 앞에 붙는 ‘여유’ 라는 말, 그것만큼 멋진 문장이 있을까. 그만큼 멋진 인생이 또 있을까. 그는 ‘여유’ 라는 말을 오래도록 입 안에 담고 그것을 맛보며 음미하며 조금씩 ‘여유있는 남자’가 되어갈 것 같다.

그는 이번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이런 말은 듣고 싶지 않단다. “기수로 데뷔한 배우죠?” 그렇기에 오늘 밤에도 그는 드라마 속의 한 남자가 되어 어둠 속에 놓여 있다. 조심조심 내뱉던 마지막 말이 그의 머리 위에서 하얗게 흩날린다.

“영원한 배우보다는 제가 원하는 배우의 모습일 때까지만 할 거예요.”

글 / 정영_시인 · 사진 / 김연식

“우리 정말 뜬 거야, 그런 거야?”

〈웃찾사〉 ‘그런거야’ 팀 - 권성호 · 김형인 · 최영수



김형인 : 1981년생, 백제예대 연극영화과, 2003년 SBS 개그 콘테스트 입상.

“아직도 데뷔 못한 동기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만나면 그래요. 김형인도 댔는데, 너희라고 못 하겠냐. 힘을 내라.”

군대의 '갈굼' 문화를 소재로 한 SBS 공개코미디 <웃음을 찾는 사람들(웃찾사)>의 '그런거야' 코너가 폭발적인 인기다. 지난 7월 첫 방송을 시작, 5개월만에 최고의 유행어를 만들어낸 '그런거야' 팀의 원성호, 김형인, 최영수는 아직도 "사람들이 웃어주는 게 신기할 따름"이라는 '초짜' 개그맨들. 첫 만남부터 기자를 웃기기 시작한다. "우리 인터뷰하는 거야, 우리 뜯 거니, 그런 거야?"

사



최영수 : 1984년생. 가야대 연극영화과. 2003년 SBS 개그 콘테스트 입상.
"형들하고 '그런거야' 아이디어 짤 때가 제일 재밌어요. 시끌벅적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순간이죠."



권성호 : 1980년생. 서울예대 연극과, 2003년 SBS 개그 콘테스트 은상 수상.
"5사단 최전방 철책에서 근무했습니다. 사실 그때도 '고문관' 이었습니다."

병장이 휴가를 다녀온 일병에게 묻는다. “재미있었냐?” 일병이 답한다. “재미있었는데요.” 병장이 말을 받는다. “사회말 쓰는 거야, 적응이 안되는 거니, 그런거야?” 병장이 다시 묻는다. “휴가, 또 가고 싶지?” 소심해진 일병이 정색하며 답한다. “아닙니다.” 이어지는 병장의 대사, “집에서 널 버린거니, 밖에서 사고쳤어, 그런거야?”



우연한 아이디어 그들과의 인터뷰는 정말, 정신이 없었다. <웃찾사> 연습이 한창인 SBS 등촌동 공개홀. 복도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인터뷰를 막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세 사람이 동시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 목소리로 외친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웃찾사>에 출연하는 대선배 이병진이 지나가는 참이다.

그 뒤로도 몇 번, 선배들이 지나갈 때마다 벌떡 일어서 인사를 하느라 대화가 중간 중간 끊어진다. “인사드릴 선배가 너무 많아서 힘들겠다”고 농담을 건네니 정색하며 고개를 흔든다. “힘들기는요. 방송 출연하면서 예전부터 진짜 좋아하던 개그맨 선배들을 가까이서 보는 것 만으로도 영광이죠!”

지난 2003년 12월 SBS 공개 개그맨 동기로 출발한 세 사람. 당시 함께 입상한 사람들은 30여 명이었지만 프로그램에 출연할 기회를 잡은 사람은 10명 남짓 뿐이었다. 코너를 맡지 못한 세 사람은 무대에 설 날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반백수’로 보냈다.

“당시 다른 동기들은 방송 출연하느라 바빴는데 우리 셋은 코너를 못 맡아 빈둥거리고 있었어요. 매일 모여서 뭐 새로운 아이디어 없냐 하면서 코너 짜내느라 바빴죠.”(권성호)

그날도 하루 종일 회의하다가 뒷풀이로 술을 마시던 김형인이 우연히 군대 시절 이야기를 꺼냈고, “형, 이거 뜨겠는데?”라는 최영수의 주입세에 힘입어 탄생한 코너가 바로 ‘그런거야’. 둘은 20분 만에 똑딱 아이디어를 완성했고, ‘고문관’ 역할을 맡아줄 사람을 물색하던 중 ‘이미지가 딱 맞는’ 권성호를 끌어들었다.

“하루 종일 짠 아이디어는 썰렁하다고 탈락되고 20분 만에 완성한 ‘그런거야’를 소극장 무대에서 한 번 선보였더니 바로 반응이 오더라구요. 우연히 발견한 아이디어였지만 우리한테 큰 기회가 된 셈이죠.”(김형인)

코너 속 역할과 실제 세 사람의 성격이 딱 들어맞는다는 것이 재밌다. 실제로 권성호와 김형인이 군대에서 겪었던 일을 소재로 삼는 경우도 많다. 일병을 끊임없이 갈구는 상병으로 출연하는 김형인은 방송 첫 회가 나간 후 전화를 받았단다. 군대 시절, 자기 밑에 있던 ‘졸병’이었다.

“난데없이 전화하더니 첫 마디가 ‘형, 그 코너 형이 생각한 거지? 옛날 형이 나한테 하던 거랑 똑같더라’였어요.” 매일 당하기만 하는 일병 역할의 권성호는 “사실, 군대에서도 ‘고문관’이었다”며 껄껄 웃는다. 막내 최영수는 아직 군대에 안 갔다. “형들이 자꾸 해병대 가라고 그래요. 사실 형들 같은 전우 만날 까봐 무서워요. 하하~”

역할분담도 척척 세 사람 나름대로 전공분야가 있다. 주된 아이디어는 김형인에게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생각이 하나 떠오르면 그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끈기가 있다”

는 게 나머지 두 사람의 평가. 막내 최영수는 아이디어를 ‘깎아주는’ 역할이다. “영수는 대화를 할 때 웃기는 대사가 나올 수 있도록 멘트를 쳐 주는데 천재적이에요. 영수가 20번 정도 ‘깎아주면’ 그 중 하나는 쓸만한 대사가 나오죠.”(김형인) 큰형 권성호는 ‘영구’ ‘맹구’에 이은 ‘바보 연기’의 대가란다. “어리숙한 연기가 웃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 성호 형은 그걸 아주 잘 해요. 연기는 우리 셋 중에 제일 뛰어나다고 할 수 있죠.”(최영수)

‘그런거야’가 인기를 얻으면서 세 사람의 생활도 많이 바빠졌다. 각자 ‘그런거야’ 외에도 두 세 가지 코너에 출연하고 있고, 주말에는 꼬박꼬박 소극장 무대에도 오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설 수 있는 무대가 있다는 것에 무조건 감사한다”.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는 행복하죠.” 가장 짜릿함을 느끼는 때는 관객들이 박수를 치며 웃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반응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연기하는 사람도 덩달아 신이 나죠.”(김형인) 그럼, 웃길 거라 생각하고 대사를 던졌는데 차가운 반응이 돌아올 때는? “‘웃길 줄 알았던 말야, 나 혼자 웃긴 거야, 그런 거야?’ 같은 애드립으로 상황을 모면해요. 그래도 속으로는 식은 땀이 흐르죠.”(최영수)

신나는 삼천포 인터뷰 아직은 ‘배고픈 개그맨’인 이들은 이동할 땐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권성호의 차에 다같이 타고 다닌다. 군복을 입지 않으면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슬쩍 알아보고 수근대는 사람들이 있으면 일부러 찾아가서 인사하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거야’에 열광하지만 언젠가는 식상해 할 것에 대비해 평소에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준비해놓는 것도 이들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다.

“인기를 얻고 나니 달라진 게 뭐냐”고 물으니 김형인이 갑자기 “기수 신지랑 싸이 홈피 1촌을 맺었어요” 한다. 옆에서 최영수가 “다시 우리의 ‘삼천포 인터뷰’ 시작이야?”라며 거든다. 인터뷰 할 때마다 질문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흘러가 결국 자기들끼리 황설수설하면서 끝을 맺는다고 해서 ‘삼천포 인터뷰’라는 말이 나왔다. “아니, 이거 삼천포 아니야. (필자에게) 이거 꼭 인터뷰에 써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데뷔 전부터 신지 팬이었어요. 연예인 되면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 못 만났어요. 이번엔 꼭 만나야 합니다.”

아직은 신인다운 풋풋함이 풍기는 세 남자와의 인터뷰. 정신은 없었지만 무척 즐거운 시간이었다. 다음에 만나면 “그래서, 신지는 만났냐”고 꼭 물어봐야지.

글/이영민 자유기고가·사진/김연석



2004 슈퍼모델 입상자

이제 세계를 향해 위킹을 시작합니다!

슈퍼모델 1위 강소영 (18세)

지난 11월 5일에 개최된 '2004 슈퍼모델선발대회'는 SBS TV를 비롯해 케이블TV와 위성방송(SBS 드라마플러스), 인터넷(SBSi)은 물론 모바일(SKT)에서도 동시에 생중계됨으로써 '디지털과 패션뷰티의 만남'이라는 대회 슬로건을 충실히 이행한 행사로 평가받은 가운데 12명의 새로운 슈퍼모델을 탄생시켰다.



슈퍼모델 2위 김은영 (16세)



슈퍼모델 3위 박성희 (22세)

〈촬영 현장〉
스튜디오 | 센바
스타일리스트 | 최은혜, 최은정
의상 | 강기옥, J-hyun
소품 | J-hyun



(앞줄 왼쪽부터)아나호텔교토 임은경, EXR 이새봄 (뒷줄 왼쪽부터) 우정상 조지혜, June 이은정, 싸이월드 미니홈피 송은지

2004년 **슈퍼모델 1위 강소영**(함현고교 3학년)은 몇 년 전부터 슈퍼모델이 되기 위해 워킹, 포즈, 영어회화, 일어회화, 몸매관리 등을 준비했다고 하니,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스타는 아닌 셈이다. 평소에도 체형관리를 위해 아침 저녁으로 줄넘기를 300개씩 하는가 하면, 간단한 복근운동은 습관적으로 즐긴다고. 프랑스에서 패션모델로 활동하기 위해 준비 중인 그녀는 세계적인 모델이라는 자신의 꿈을 향해 달리고 있다.

슈퍼모델 2위 김은영(영덕여고 2학년)은 이번 대회가 발간한 '진주'다. 모델 경력이 전혀 없는 백지상태에서 준비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고, 자신의 끼를 발휘하게 됐을지도 모른다고 겸손하게 말하는 그녀의 좌우명은 "성실하고, 겸손하고, 주변지식을 넓히고, 미적 감각을 키우자"이다.

슈퍼모델 3위 박성희(이화여대 중어중문과 3학년 휴학중)는 '전략적'으로 대회를 준비해 눈길을 끌었다. 대회 출전을 결심한 뒤 1년 동안 슈퍼모델대회 성격과 입상자들을 파악하고 자신의 실력을 파악하기 위해 사진도 많이 찍고 이미지 메이킹을 준비하는가 하면 건강하고 발랄한 이미지를 어필하기 위해 발리댄스까지 배웠다고 한다.

9명의 특별상 수상자들도 당당함이 돋보였다.

EXR 상 이새봄(문영여고2학년)은 슈퍼모델이 되기 위해 재즈댄스, 수영, 연기레슨을 받다가 하면 실전 경험을 익히기 위해 패션쇼 무대, 지면 CF 광고, 시트콤 등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모델 신디 크로프트를 가장 좋아하며 일어가 수준급이다.

엔프라니 상 최은영(수원여대 연기영상과 졸업)은 요가, 헬스, 재즈댄스를 즐기며 특히 여성 4인조 그룹 S 에서 보컬로 활동하는 등 다재다능한 끼를 자랑한다.

June 상 이은정(이화여대 생명과학과 2학년 휴학중)은 패션모델 뿐만 아니라 CF 모델과 연기자도 되고 싶은 꿈을 가졌다. 영어실력이 수준급이라고.

엘라스틴 상 조소현(동서대 뮤지컬전공 4학년)은 2004년 미스코리아 경남진 출신으로 어릴 적 꿈을 이루기 위해 슈퍼모델대회에 참가했다. 뮤지컬을 전공하고 있는 그녀는 섹스폰 연주도 수준급이다.

아나호텔교토 상 임은경(수원대 연극영화과 2학년)은 CF모델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모델 중에 슈퍼모델 출신의 박들선과 지젤 번천을 좋아한다고.





(앞)솔로슬림 김선유 (둘째 줄 왼쪽부터)리플리 김규봉, 엘라스틴 조소현 (맨 뒤) 엔프라니 최은영

리플리 상 김규봉(대덕대 모델과 1학년)은 헬스, 태보, 에어로빅, 킥복싱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건강미인이다. 슈퍼모델이 되기 전 CF모델로 얼굴을 알렸다.

싸이월드 미니홈피 상 송은지(대덕대 모델과 1학년)는 무대위의 카리스마와 모델의 길만 고집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선배 모델 박돌선과 박순희를 가장 존경한다고 말한다. 모델과 재학생 답게 패션지에서 활동했으며 앞으로 멋진 모델이 되어 워킹과 연출로 관객들을 사로잡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갖고 있다.

솔로슬림 상 김선유(동덕여대 방송연예과 2학년)는 전공을 살려 앞으로 패션 화보나 CF모델 쪽으로 진출하고 싶다고 한다. 평소엔 운동을 즐기는 편이 아니었는데, 슈퍼모델이 되기 위해 열심히 운동을 병행하며 체형 관리를 해왔다고 한다.

우정상 조지혜(이화여대 교육대학원 국어국문과 휴학중)는 지성과 미모에 이쁜 마음씨까지 갖춘 미녀다. 올해 대회에 나오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지원했다는 그녀의 좌우명은 “포기는 김장철에나 쓰는 말이다”라고 한다.

12명의 2004년 슈퍼모델들은 모두 다른 얼굴의 다른 개성을 가진 모델이지만, 이들의 공통된 점은 디지털 시대를 이끌고 갈 패션리더가 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노력형 모델이란 점이다. 앞으로 1년 동안 ‘2004 슈퍼모델’로 활동하게 될 12명의 모델들은 슈퍼모델대회에 도전했던 것과 같이 세계적인 모델이 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계속할 것이다.



그가 맡은 프로그램을 보고 있노라면, '타고난 방송인'이라는 심증이 굳어진다. 그는 전파를 타고 흐르는 시청자들의 민감한 감정을 본능적으로 감지해낸다. 시청자들이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런 그의 진행에서 억지스런 구석은 눈을 씻고 찾아도 없다. 하긴 그는 PD들이 '프로그램을 띄우고 싶으면', '장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으면', 혹은 '초대형 생방송을 마음 졸이지 않고 연출하고 싶으면'이라는 전제 뒤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진행자가 아니던가?

“30년이 흘렀어도 나는 여전히 일이 설렌다”

MC 임성훈

관록으로 뭉친 카리스마 고작 30분이러니! 참으로 난감했다. 인터뷰를 위해 허락된 시간은 겨우 30분. 이견 시험이다. 초 시계를 들고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답변을 받아낼 수 있는지 측정하는 시험. 하지만 어찌겠는가, 사람이 답하지 않는 휴대전화기에 음성 메시지만 녹음한 후 무작정 찾아온 길이었으니, 애초부터 퇴짜나 맞지 않으면 다행이었다. 더구나 녹화를 1시간 앞둔 방송 진행자가 짜내준 '30분'은, 무례한 방문자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다.

MC 임성훈 씨와의 인터뷰는 이렇게 시작됐다. 장소는 SBS 일산제작센터 D스튜디오 앞, 때는 그가 진행하는 <솔로몬의 선택> 녹화 예정시간 1시간 앞. 대본을 손에 든 그는 스튜디오 근처 사무실 빈 책상에 의자 두 개를 끌어다놓고 기자에게 서둘러 앉으라 했다. “녹화 대본이 상당히 두툼하다”고 말을 건넸다.

“<솔로몬의 선택>의 경우, 대개 대본을 녹화 직전에 받아들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대본을 아직 못봤지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MC 멘트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패널(출연진)들의 몫이 적지 않으니까요. 오늘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에피소드들이 정리돼 있어서 이렇게 대본이 두툼해진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MC가 글자 한 자 한 자를 머리 속에 집어넣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전체적 분위기를 잡고 내용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죠. 아무래도 출연진이 많고 또 돌발상황이 있는 프로그램이라, 대본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의 애드립(즉흥적인

대사 또는 코멘트)이 더 자주 필요합니다.”

말하는 사이사이 대본을 익숙하게 대각선으로 훑어내리는 시선에서 그의 관록이 묻어났다. 판사들은, 손가락에 골무를 낀 채 어마어마한 양의 기록을 속독에 가까운 속도로 넘기면서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을 보면서 ‘경악에 가까운 경외심’을 느낀다는데, 이 ‘진행의 최고수’에게도 비슷한 카리스마가 풍겼다. 특별히 팬을 들지 않아도, 그는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지, 어디서 웃음을 보여야 하는지 이미 ‘감’을 잡은 것 같았다.

타고난 ‘감’과 ‘절제력’ 그의 ‘감’은 이미 전문 MC로 방송에 처음 등장하던 때부터 남달랐다고 한다. 1975년 TBC에서 최미나 씨와 함께 진행을 맡아 <가요 올림픽>으로 데뷔했을 때 그는 “신인답지 않게 분위기 파악에 뛰어나다”는 평과 함께 일찌감치 MC로 대성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아마도 어릴 적부터 훈련 아닌 훈련을 많이 한 게 도움이 된 모양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오락시간은 제 차지였고, ‘1시간 동안 급우들을 즐겁게 하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할 수 있었어요. 같은 얘기라도 제가 하면 재밌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미팅 사회를 참 많이 봤는데, 분위기를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압권은 그의 ‘인간적 모습’이다. 그의 프로그램





에 초대된 출연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정중한 대접을 받는다. 그는 출연자를 제물 삼아 억지 웃음을 자아내는 법도 없고, 시청자들을 핑계대고 출연자를 곤경에 빠뜨리지도 않는다.

“기구한 사연의 출연자가 나오면, 마음의 상처가 눈에 보입니다. 출연자들은 본능적으로 상처를 방어하려고 하지만, 제작진은 대개 ‘눈물’을 요구합니다. 이른바 ‘강하게 물어봐 달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가급적 아픈 상처를 헤집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같은 말이라도 아프지 않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려고 최대한 애를 쓰지요.”

그는 공동 진행자들에게 인기가 좋기로도 유명하다. 젊은 여자 MC들로부터 “짜이 된 남성 MC가 여성 뭇까지 가로채간다”는 불평이 종종 나오지만, 임성훈 씨를 두고는 그 반대의 평가가 나온다. 그는 여자 MC들이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흔쾌히 돕는다.

그는 또 절제할 줄 안다. 비슷한 시점에 비슷한 성격의 프로그램 제의가 여러 채널에서 들어오면 고사하는 것을 아예 원칙으로 삼았다. ‘시청자들에게 괜한 혼동을 주는 것은 결례’라는 게 그의 소신이다. 시청자들의 한결같은 30년 사랑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실력을 운으로 돌리는 겸손함 “지난 1975년에 첫 방송을 했으니 햇수로 30년이네요. 솔직히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한 번도 외도하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돌이켜보면 시운(時運)도 따랐던 것 같습니다. 또 프로그램과 궁합도 잘 맞았구요.”

그는 인터뷰 내내 반복해서 ‘운’을 강조했다. 30년 동안 한 해도 프로그램 제의를 받지 못한 적이 없었고, 그가 맡았다 하면 예외없이 평균 4~5년에 이르는 ‘장수 프로그램’이 됐다는 진기록을 소개할 때에도 어김없이 ‘운’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은 다 할 수 있었어요. 처음 연예, 오락 프로그램으로 출발해서 10년 정도 열심히 뛰다 보니 정보, 교양

프로그램으로 자연스럽게 ‘크로스오버’ 할 수 있었지요. <생방송 전국은 지금> 같은 프로그램이었죠. 그러다가 토크쇼라는 형식이 방송계에 도입되면서 <밤과 음악 사이>를 맡게 되었고, 지난 90년대 후반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토크쇼까지 범위를 넓히게 되었죠. 정말 뉴스 앵커 말고는 다 해봤나 봐요. 그래서인지 올해 <세븐 데이즈>를 맡으면서는 개인적으로도 무척 반갑고 또 욕심이 나더군요.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죠.”

전무후무할 크로스오버 진행자 지난 여름 아테네 올림픽 축구의 메인 MC를 맡았을 때도 너무나 기뻐했다고 한다. 익숙치 않은 스포츠 분야여서 걱정을 했는데, 결과는 공중과 방송 3사 중 시청률 1위. 큰 보람을 느꼈다. 이처럼 전무후무한 ‘크로스 오버형 MC’는 절대 운만으로 탄생하지 않는다.

“처음 방송을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딱 한 가지는 똑같습니다. 새 프로그램을 맡으면 늘 설레고 마음이 뛰고 흥분됩니다. 아내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신인같다’고 놀리지요. 이젠 좀 심드렁할만도 한데, 아직도 뭐가 그렇게 신나느냐고 신기해하기도 하구요.”

30년의 설렘, 일 자체를 즐기는 철학이 그의 밑천이다. 흔한 ‘재충전’도 없이 지나온 세월. 25년째 되던 해에는 기념 방송을 하지는 제의도 있었지만, 그는 조용히 손을 내저었다. 30년째인 올해도 마찬가지다. 연말 짬 가족들과 저녁식사나 한 번 할 생각일 뿐, 더 이상의 계획은 없다. 하긴 4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르는 그의 방송 인생에서 30년은 그저 지나가는 이정표 중 하나일지 모른다.

약속한 30분을 넘기고도 인터뷰 종료를 재촉하지 않던 그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스튜디오로 향했다. MC(Master of Ceremonies) 임성훈, 방송의 Master(달인)는 그렇게 또 화면 속으로 들어갔다.

글 / 한수진 보도국 편집기획부 기자 · 사진 / 조광희



일본인의 숙명과도 같은 ‘지진 예감’

올들어 일본은 10년 불황 탈출에 신바람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로 접어들면서 이상스레 일본 곳곳에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일본인의 가슴을 또 한 번 서늘하게 만든 니가타 지진에 이어 더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측과 불안 때문입니다.

실감나는 가상 시나리오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 사람과 건물 그리고 각종 시설이 어우러져서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이 대도시를 진도 7의 강진이 한 순간 흔들어 버린다. 이 지진은 예측하기도 어렵고 피해도 크다는 이른바 직하형이다. 집 안에서 가구들이 넘어지고 떨어지고, 내진 설계가 부실한 건물들은 대부분 무너져 내린다. 수도와 전기가 끊어지고, 곳곳에서 가스폭발과 화재가 잇따른다.

거미줄과도 같은 수도권 전철은 엇가락 처럼 휘어진 채 열차가 나뒹굴고, 도로는 거북등처럼 갈라져 교통 또한 마비된다. 상황은 말 그대로 이수라장이다. 고베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한신 대지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이다. 인명 피해는 수십만 명, 재산 피해는 집계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다. 패전 후 60년 동안 건설한 수도 도쿄가 이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다.’

측이 불가능하고 피해도 큼니다. 지난

10월의 니가타 지진 - 사망 46명, 부상 2,000여 명, 신칸센 최초 탈선, 재산 피해 3조엔 - 이 그랬고, 1995년 1월의 한신 대지진 - 사망 6,400여 명, 부상 4만 3,000여 명, 고베시 폐허화, 재산 피해 10조엔 - 도 바로 직하형 지진이었습니다.

불안한 예측 지난 10월 23일 니가타에 큰 지진이 일어난 뒤로, 일본 사회에는 이런 예측과 시나리오가 심심찮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도쿄를 중심으로 한 관동지역에 대지진이 언제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며 그 시기가 심지어 이번 겨울일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측과 시나리오를 단순히 풍문으로만 여길 수 없는 것은 일본의 관련 당국과 전문가들이 최근 들어 관동지역에서의 대지진을 잇따라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 산하 지진조사위원회는 지난 8월, ‘도쿄에서 진도 7 이상의 강진이 향후 10년 안에 일어날 확률이 30%, 30년 안에는 70%, 그리고 50년 안에는 90%’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중앙방재회도 지난 달,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도쿄 지역에서 진도 7.3의 직하형 지진이 발생해서 도쿄와 인근 치바현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방재회는 또한 직하형 지진이 도쿄를 흔들면, 1만 7,800명이 죽고 15만 8,000명이 다칠 것이라는 구체적인 인명피해 예측까지 내놓았습니다.

직하형 지진은 활성단층에 의한 지진으로, 사전 예

주기설과 전조설 관동지역에 대지진이 오고 있다는 예측은 또다른 관점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주기설과 전조설(前兆説)입니다. 일본의 지진 역사를 살펴보면, 80년 주기로 관동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14만 여명의 사망자를 낸 관동 대지진이 1923년 9월 1일에 일어났으니까 작년 9월로 80년 주기를 넘기고, 지금은 초읽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관동 대지진 때 일본 정부는 흥흥한 민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재일 한국인들이 ‘우물에 독을 넣고 방화약탈한다’는 유언비어를 날조해서 우리 동포 6,000여 명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때에 대해서도 통계를 들어 예측합니다.

역사상 대지진은 9월에서 10월 사이와 12월에서 1월 사이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주기설과 월별 통계로 볼 때 금년 12월과 내년 1월이 대지진이 발생하는 시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진을 예고한다는 자연현상, 예를 들어 여름에 고온현상이 장기간 지속된다든가, 천둥,번개, 낙뢰가 잦아든가, 검은 비구름이 빨강색 변한다든가, 동물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면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전조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전조설은 땅 속 지각변동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전자파가 그와 같은 자연현상을 만들어 낸다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여름, 일본 열도는 섭씨 3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8월 이후까지 계속됐고, 도쿄 지방은 수은주가 39.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태풍이 무려 10개나 섬에 상륙하는 바람에 천둥과 번개도 유난히 많았습니다. 많은 비로 지반은 약해질대로 약해졌습니다. 9월부터는 군마현의 아사마 화산이 다시 불을 내뿜기 시작해서 150km 떨어진 도쿄까지 화산재가 날아오기도 합니다.

금년은 이처럼 일본열도에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분명 유별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들은 대지진설로 이어져서,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그래서 더욱 편안치 않은 기류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현대과학도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재앙 그러나 지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아직도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첨단 장비와 분석 기술이 날로 발전되고 있지만, 인간의 지혜와 과학으로는 지진이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의 크기로 일어날 것인지 명확하게 집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진발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일본도 대체적인 예측과 더불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전부인 듯합니다.

일본의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은 1995년의 한신 대지진은 물론, 지난 10월의 니가타 지진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예측은, 재앙을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 정확성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진 예측에 대해서는 현대 과학도 한참 멀리 있는 듯 합니다.

일본에서는 한 해에 크고 작은 지진이 7,500여 회나 일어납니다. 이 가운데 몸으로 감지되는 지진은 1,500회 정도라고 합니다. 필자도 지난 4월부터 도쿄에서 몸이 많이 흔들리는 지진을 다섯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진도 3 정도의 지진들입니다.

이렇듯 지진은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일부일 수 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화산도 83개나 됩니다. 전 세계 활화산의 10%입니다. 일본의 상징 후지산도 아직 살아있는 화산입니다. 300년 전에 분화한 뒤, 지하 30km에서 계속 마그마 에너지를 축적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불을 내뿜지 않으리라고는 결코 장담할 수 없다고 과학자들은 말

합니다. 여기에 태풍과 해일,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엄청난 호우와 대설도 그들에게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부딪쳐야 하는 자연으로 부터의 시련들입니다.

일본인의 숙명 의식 그런데, 그런 재앙을 대하는 일본 사람들의 자세가 매우 흥미롭고 특이합니다. 일본에 큰 지진이나 태풍이 왔을 때, TV 뉴스를 보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표정이 어찌면 저렇게 담담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의문에 대한 일본인들의 대답은 "조상 대대로 수 천년 동안 겪어온 일이고, 앞으로도 또 겪을 일이고, 일본인이면 누구나 겪는 일이고, 그러니 남들 앞에서 울고 불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돌아서서 혼자 울면 됐지..."입니다.

'현실지향적이고 전체주의적이며 체제순응적이고 표리부동'하다는, 참으로 일본인적이고 일본문화적인 대답 같습니다. 거꾸로, 일본과 일본인을 바로 알려면 일본 열도가 안고 있는 독특한 자연환경을 반드시 먼저 알고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들은 "일본은 지진만 없다면 살기 좋은 땅인데..."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산 높고 물 맑고 먹거리도 비교적 풍부한데, 또 태풍 같은 재해는 예측과 대비가 나름대로 가능한데, 그러나 지진은 언제 어디를 흔들어댈지 알 수가 없어 늘 불안의 꼬리를 달고 산다고 말합니다. 그 대신, 일본 땅에서 지진을 겪을 때마다 자연과 세상에 대해 지극히 겸손해진다고 말합니다.

일본의 심장 도쿄에 대지진이 과연 오고 있을까? 그 누구도, 과학조차도 단언할 수 없지만, 니가타 지진이 일어난 후부터 대지진설은 사람들의 입에 상당히 오르내리면서 그것이 비현실적인 설에 그치지만은 앓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 / 김진원 SBS 이사대우, 현 게이오대학 방문연구원



이 글을 쓸 즈음(지난 달 20일쯤) 한 종합병원 병실에서 보내야 했던 시간이 많았다. 어떨 때는 24시간 가까이 좁은 병실 안 침상 옆에 앉아 별달리 할 일도 없이 - 나는 바쁘신 의사 선생님이 아니므로 -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다.

나이든다는 것의 편안함에 대하여



병실에서는 어둠의 기운이 비어져 나왔다. 발은 기침 한 번 하려 해도 들이쉬는 숨이 보기에 힘겹다. 그런데 복수(腹水)가 차 배가 남산만한 옆 침상의 노인이 부르더니 세상에, 담배 좀 사다 달란다. 그 노인이 병실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말을 전해 듣고 설마 하던 나는 화가 버럭 났지만 내색도 못하고 무슨 말씀하시냐고 손사래만 쳤다. 결국 사다 줬다. 노인들의 완강함은 완강함으로 느껴지지 않기에 더욱 버텨내기 힘들다. 단풍은 타는 듯이 붉으나 낙하가 멀지 않음은 하릴없는 일이다.

그렇게 울적하다 복도에 나오면 좀 나왔다. 이 병실 저 병실을 눈 기웃거리 보니 소아 병실이 많았다. 어린 것들이 참 안됐다 싶다가도 그들은 곧 떨치고 일어나 푸른 잎을 맏껏 피우리란 데 생각이 미치면 징징 울어대는 소리마저 기운차게 느껴진다. 링겔 병을 꽂고 다녀도 아이들은 발산하는 기운인 것이다.

밤을 새다시피 하고 점심을 먹으러 병원 밖으로 나왔다. 병원은 바로 대학 캠퍼스와 이어졌다. 늦가을이지만 다사로웠다. 여학생들의 미니스커트에 눈이 부셨다. 정확히는 이즘 유행하는 반스타킹을 신은 그들의 활기찬 다리에 눈이 부셨을 터이다. 그들은 단풍 아래서, 낙엽 위에서 더 아름다웠다.

인력(引力)에 몸을 내어준 단풍잎이, 스쳐가는 계절이, 가는 세월이 못내 아쉬웠다. 절반 정도는 지나가 버린 것 같은 내 젊음을 - 아직 절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 꼬옥 쥐고 더 이상 놓아주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그야말로 생각만, 굴뚝 같았다. 젊다는 것은 이유를 댈 필요 없이 좋은 것이다.

그럼 나이가 든 것은 뭐가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솔직히 좋긴 뭐가 좋은가. 일단 육체적으로는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럼 정신적으로는 뭐가 좋은가. 그것 역시 좋긴 뭐가 좋은가. 고집은 세고, 잘 토라지고, 편벽되고, 제 말만 하지 남의 말은 듣지 않는다.

이런 저런 생각 속에 부유하다 보니 두 노(老) 예술가를 인터뷰한 기사들이 떠올랐다. 백남준과 박완서. 지난 10월 이들은 새 작품을 냈다. 백남준 씨는 뉴욕에서 '존 케이지에게 바침'이라는 퍼포먼스를 했고 박완서 씨는 <그 남자네 집>이라는 소설을 펴냈다.

백남준 씨가 1932년 생, 박완서 씨가 1931년 생이니 두 분 다 고회를 넘긴 명실상부



* 다음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2월 18일자 조선일보 김광일 기자 박완서 인터뷰 기사

11월 9일자 세계일보 조용호 기자 박완서 인터뷰 기사

10월 7일자 조선일보 정재연 기자 백남준 인터뷰 기사

한 노인들이다. 공통점? 동안(童顔)이라는 것과 그 연세에도 마르지 않는 창조성을 보여 준다는 것.

백씨를 인터뷰한 기자가 물었다.

“예전에 한 TV 광고에서 ‘창조 창조 창조’ 하고 외치셨잖아요?”

내가 백남준이라는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상(像)은 크게 두 가지 경험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1984년 새해 벽두의 TV쇼 <굿모닝 미스터 오웰>, 또 하나는 그가 1997년에 찍은 기업 CF다. 당시 백남준 씨는 ‘청년정신’을 기치로 한 기업 CF에 나와 뇌졸중으로 잘 가 누지 못하는 몸으로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창조! 창조! 창조!”라고 외쳤다. 그 말에 감동한 나는 제작사로부터 TV용은 물론 다른 버전의 광고 테이프를 얻어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백씨는 앞서 물은 기자에게 이렇게 답했다.

“에이전시가 하라는 대로 했어. 돈 받으려면 타협을 해야지.”

인터뷰 기사를 보고 속았다는 생각에 순간 망연자실, 분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건 정말 순간이었다. 잠시 뒤 이상하게도 오히려 후련한 감이 드는 게 아닌가. 인생이란 게 속고 속이는 것, 제 자신도 속이는 것이 사람이다. 노인네의 천의무봉이 맘에 들었다.

백 옹은 또 말했다.

- 백남준은 누구인가요? “난 바보라고.”

- 왜요? “바보니까 바보지. 바보야 바보. 미친 놈.”

- 젊어서 미친놈 소리 많이 들으셨죠? “미국에선 아직도 미친 놈이래.”

-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으세요? “할 수 없지. 난 스nob(Snob)이라고. 명성을 즐긴다고. 돈은 없어도 명성은 있었지.”

박완서 씨도 자신을 긍정한다는 점에서 백 씨와 닮았다.

“혼자 있는 게 더 편해요. 홀로 식사를 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차려놓고 즐겁게 먹어요. 나는 왜 이렇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나, 속으로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그냥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하지요.”

- 정직하게 쓰다니요, 무슨 뜻입니까? “그냥 좋고 쉬운 글을 쓰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지금은 기운이 없긴 하지만 죽기 전에 꼭 한 번 완전하게 정직한 삶을 살고 싶어요. 돕는 사람들의 자기 선전이 너무 많고 정작 도움받는 이들에게 돌아가는 건 조금이지요.”

- 선생님 책에서 독자들이 감동과 재미를 얻는다면 그것은 삶에 밀착한 글쓰기 때문인가요? “제가 그러려고 그러니까. 자기를 장식하는 글은 안쓰려고 하지요. 어떤 이는세계적 석학과 철학자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열심히 살면서 나이 먹다 보면 그런 진리를 자기 마음, 할아버지, 엄마, 식구들 그리고 무식한 이웃들에게서도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게 나이 들어서 좋은 것 아닐까 싶다. 눈 앞의 사리사욕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볼 수 있는 여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 세상을 보는 혜안. 나이 들은, 늙은은 그래서 좋은 것이다. 자신이 자연임을 알아가는 것, 그 생각은 낡고 늙어서 늘 새롭다.

- 올해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연애소설을 하나 낼 계획입니다. 새 약속은 절대 안할 겁니다. 정신이 맑을 때, 이만하면 헛소리가 아니다 싶을 때 지난 약속들을 지키고 은퇴해서 놀 것입니다.”

지난 2월 인터뷰에서 이렇게 약속한 박완서 할머니는 지지난달 <그 남자네 집>을 펴내 약속을 지키셨다.

글 / 이주형_보도국 인터넷뉴스팀 기자



FMM 라디오를 끼고 살았던 그 시절, 나는 라디오 피디는 곧 음악 프로그램 피디인 줄 알았다. 업서에 주절주절 사연을 적고, 한 2주쯤 후로 날짜를 정해 신청곡을 보내던 그 때, 내 꿈은 좋아하던 디제이 뒤에서 릴레이를 돌리는 것이었다. 그땐 뭐가 그리 마음을 움직였는지. 성적이 떨어지면 당장 라디오부터 압수하시던 어머니도 그 라디오가 당신 자식의 밥벌이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 못하셨을 것이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전경옥을 들으며



음악이 생활이 되는 순간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갖고 산다. 음악을 사랑하게 된 이유도 제각각이다. 영화를 보다가 음악과 사랑에 빠진 이가 있는가 하면, 똥땅거리며 소리나는 피아노가 신기해서 다가가기도 하고, 버스 안에서 스친 노래 한 곡에 온 마음이 사로잡히고, 어릴 때부터 늘 들었던 엄마의 노랫소리가 영원한 그리움으로 가슴에 남아 음악을 곁에 두는 이도 있다. 나는 이런 놀라운 음악의 정체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싶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삶조차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그 음악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했다.' - 주성혜 <음악원 아이들의 한국 문화 읽기>

몇 해 전 음악학 강의를 들으며 만난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의 주성혜 교수는 제자들의 글 모음집 서문에 이렇게 적고 있다. 1년마다 열리는 성가콩쿨을 포기 못해 결국 예고에 진학했고 그 음악의 정체가 궁금해서 음대에 진학했다는 주 교수의 이야기는 공감가는 내용이었다. 음악이란 게 그런 거지, 옆에 있으면 곧 생활의 일부가 되는 것.

편안한 울림으로 다가온 노래 아마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하는 사람은 더 뚜렷한 음악사랑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음악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분명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 계기가 있을 것이다. 아이 둘을 키우는 주부이면서 음악의 끈을 놓지 않는 이 가수도 소소했던 음악사랑이 결국 노래를 하는 삶으로 바뀌게 한 것이 아닐까? 전.경.옥. 무대나 매체에서 한 번도 본적이 없는 가수인데, 노래가 마음을 움직인다. '엘리트 음악인 출신 민중가수. 클래식, 대중음악, 국악의 경계를 유유히 넘나드는 가수' 라는 꼬리표가 말해주듯 그의 노래 속엔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의 색깔이 다 빛나고 있다.

선곡을 하다가 우연히 맞닥뜨린 전경옥의 노래는 그야말로 물 흘러가듯 편안한 '울림' 이었다. 이런 음반이 숨어있다니. 직업정신을 발휘해 찾아낸 그의 음악여정은 잠시 사색의 시간으로 나를 이끌었다. 80년대, 시대정신, 고급음악과 대중음악, 가치와 취향의 차이... 노래 몇 곡이 이렇게 많은 생각의 꼬리를 물게 할 수도 있구나. 바로 이것이 음악의 힘인 게지.

소박한 밥상같은 원형의 음악 가수 전경옥은 서울음대 출신이다. 피아노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던 유년기, 라디오를 끼고 잠이 들던 사춘기를 보낸 그는 결국 좋아하던 음악을 하고 싶어 성악과에 진학한다. 하지만 격동의 80년대는 프리마돈나를 꿈꾸던 그를 고고한 성악도에서 거리의 활동가로 탈바꿈하게 만든다. 음악을 통해 시대의 고민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술한 방황과 아픔의 시절을 보냈지만 결국 전경옥은 노래로써 소외된 삶에 위로를 보내는 음악인으로 거듭났다. 1998년 〈혼자사랑〉이란 음반으로 세간의 주목을 잠시 받았으나 ‘어렵다’는 이유로 이내 묻혀졌고 이듬해부터 준비해온 새 노래들은 지난해 2집 〈사랑앓이〉로 5년만에 발표되었다. 지난 세월이 그대로 녹아 내린, 어쩌면 스스로에게 보내는 헌정음반인지도 모르겠다.

오래된 벗, 류형선과 공동작업을 한 전경옥의 〈사랑앓이〉를 듣고 한 평론가는 “수많은 향신료와 조미료로 차려낸 밥상만을 대하다 어느 날 밥과 간장, 그리고 몇 가지 말린 나물 반찬만으로 차린 소박한 밥상 앞에서 느끼는 맛의 원형같은 감동을 받았다”는 최고의 찬사를 보냈다. 진지함을 추구하는 서정적인 노랫말, 금세 친숙해지는 아름다운 멜로디, 단조로와 평화롭기까지 한 클래식 기타의 선율에 잘 다듬어진 전경옥의 목소리. 굳이 장르를 구분하자면 ‘크로스오버’ 정도일까? 하지만 전경옥은 스타일의 구분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그저 음악적 보편성을 찾아가는 노래, 노래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편안하게 부르며 듣는 사람도 편안해지는 것이 좋은 노래라고 말한다. ‘단순하면 서도 깊이있음’을 지향한다는 전경옥의 음악.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요즘 세상에서는 흔치 않은 음악 철학임이 서글퍼진다.

손이 시리면 따스히 만져주마 / 추운 날이면 두 볼을 감싸주마
너무 힘들거든 내게 기대오렴 / 눈물 나거든 내 품에 안기렴
흐린 물줄기 이따금 만나거든 / 피하지 말고 뒤엎켜 가거라
강물아 흘러 흘러 바다로 가거라 / 맑은 물살 뒤척이며 바다로 가거라

사랑하게 만드는 음악의 힘 전경옥의 〈힘내라 맑은 물〉을 듣고 가사가 인상적이어서 받아 적었다는 청취자의 소감을 보고 음악의 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노래를 들으며 느끼는 인생의 무게. 그건 아마도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뒤돌아보는 진지함에서만 얻을 수 있는 세월의 흔적일 것이다.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따스한 미소를 머금을 수 있는 위로가 되는 노래. 한 해의 끝자락에서 전경옥을 들으며 마음을 정화해본다. 올 한 해는 비 내리지 않게, 평온하게, 사랑으로 마무리하게 하소서.

글 / 은지향(아름다운 이야기집, 김장원입니다) PD

함께 있어 더욱 빛나는 이름이여!

‘아’ 하면 ‘어’ 하는 우리! 식성도 취향도 비슷한 우리가 바로 찰떡궁합! 하지만 어디 사람만 궁합 있으란 법 있나~ 같이 먹으면 맛도 영양도 2배로 만드는 맛 재료는 따로 있다! 최고 궁합 자랑하는 요리 맛보러 가세~

건강음식 대백과가 추천하는

이 달의 웰빙음식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에 건강 적신호가 켜지는 겨울. 어김없이 뜨~끈한 국물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빵이 그리워지니 사람의 입맛처럼 계절의 법칙을 잘 따르는 것이 또 있을까? 그래서 준비한 이 달의 웰빙음식, 겨울이면 생각나는, 더욱 맛있고~ 영양가 높은 건강 음식을 만나보자!



● 유산균 덩어리, 김치

미국의 LA 타임지에서도 아시아의 보약으로 극찬한 김치. 가장 맛있는 김치는 5도 이하 온도에 한 달 가량 보관한 것! 이유인즉 김치의 맛과 영양을 결정하는 유산균 함량이 이 때 가장 높기 때문이다. 갓 담근 김치보다는 신 김치에 유산균이 많다. 특히 신 김치 국물은 유산균 덩어리! 건강음식대백과가 추천하는 신 김치전!

〈신김치로 만든 시~콤한 김치전〉

1. 3년 묵은 신 김치를 먹기 좋게 자른다.
2. 신 김치에 소금, 계란을 넣고 버무린다.

맛있는 리서치가 추천하는 최고 궁합요리 Best 5

새우두부보쌈 김장철만 되면 아삭한 김치와 곁들인 김치보쌈이 생각난다구요? 오늘날만큼 색다르게 새우와 두부의 만남을 추진해보면 어떨까? 얇은 두부에 마늘소스로 볶은 대하, 채소, 은행 등을 싸먹는 이색적인 요리! 새우와 두부에는 칼슘, 단백질이 풍부해 같이 먹으면 영양 상승 작용이 엄청나다는 사실.

〈휴〉 02-547-7758

메뉴 | 새우두부보쌈, 새우소면말이 등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전복갈비찜 불로장생을 꿈꾸던 진시황제가 즐겨 먹던 전복의 대변신! 매콤한 고추장 양념을 입혀 더욱 맛있는 전복과 돼지갈비의 만남이 여기 있다. 씹는 맛 뛰어난 물론, 돼지갈비의 콜레스테롤을 전복이 확실히 잡아주니, 건강 염려 말고 푸짐하게 드시라.

〈참전복마을〉 02-402-2833

메뉴 | 전복갈비찜, 전복갈비 매운찜, 전복버터볶음 등
위치 |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인삼숯불닭구이 여름철 즐겨먹는 삼계탕의 주인공들이 겨울에도 어울리는 새로운 맛을 탄생시켰다. 영양 가득한 인삼을 통째로 갈아, 닭에 양념을 하고, 숯불에 노릇노릇 구웠으니, 군침이 꿀꺽 넘어가는 것은 기본! 거기에 새콤달콤 유자청 넣어 졸인 고구마까지 곁들이니, 깜짝 놀랄 맛으로 거듭난다.

〈산내들내〉 02-766-7375

메뉴 | 인삼숯불닭구이, 황태구이 등
위치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쫄쫄, 도가니 아귀찜 겨울 추위 녹여주는 도가니탕의 쫄쫄한 도가니가 매콤한 아귀찜과 한 몸이 됐다! 부드러운 아귀와 아삭아삭한 콩나물, 쫄쫄쫄쫄한 도가니의 매콤한 조화가 그야말로 환상적이다. 특히, 피부탄력을 주는 도가니는 저칼로리 아귀와 먹으면 다이어트하는 사람에게 딱 좋은 영양식으로 손색없다.

〈옥매〉 02-3142-4748

메뉴 | 도가니 아귀찜, 아귀칼국수 등
위치 | 서울시 마포구 삼산동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쭈쭈미 삼겹살 삼겹살만 먹으면 어딘지 심심한 요즘~, 특별제작한 판에 삼겹살도 굽고, 쭈쭈미도 볶아 같이 먹으면 금상첨화. 고소한 삼겹살에 매콤한 쭈쭈미 살짝 싸먹으면 많이 먹어도 느끼하지 않아 더욱 좋고! 삼겹살의 필수 아미노산도 섭취하고, 쭈쭈미가 혈압도 건강하게 만들어주니, 영양도 찰떡궁합이죠?

〈아삼육〉 02-765-8310

메뉴 | 쭈쭈미 삼겹살, 조개탕 삼겹살, 묵은지 삼겹살 등
위치 |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글 / 서지연 〈잘먹고 잘사는 법〉 작가



3. 버무린 김치에 부추와 밀가루를 넣고 팬에 노릇노릇하게 지져낸다.

tip | 반죽할 때, 신 김치 국물을 넣으면 훨씬 맛있고 영양가가 높다.

●비타민 A의 왕자, 당근

당나라에서 들어왔다 하여 당근, 붉은 색을 띠다 하여 홍당무라 불리는 당근. 주목할 영양은 베타 카로틴인데~ 놀랍게도 체내에 흡수되면 비타민 A로 변한다! 비타민 A는 체내에서 시력 향상, 항암 작용, 노화 예방, 면역력 증진 등의 효과가 있다. 지용성이므로 생으로 먹거나 삶

아먹는 것보다는 기름에 볶아 먹는 것이 훨씬 좋다.

〈당근 칩 샐러드〉

주재료 | 당근 1개, 양상추 50g, 홍피망 1/2개, 건포도 1큰술, 설탕 1/2 작은 술, 식용유
소스 | 당근즙 1/4, 핫소스 3큰술, 토마토 주스와 레몬즙, 올리브 오일, 식초 2큰술씩, 겨자 1큰술, 소금&설탕 1/2 작은 술씩, 후추가루

1. 당근은 껍질을 벗긴 뒤, 둥근 모양으로 얇게 썰어 채반에 말린다.

2. 양상추는 깨끗이 씻어 먹기 좋게 손으로 뜯고 피망은 씨를 빼고 얇게 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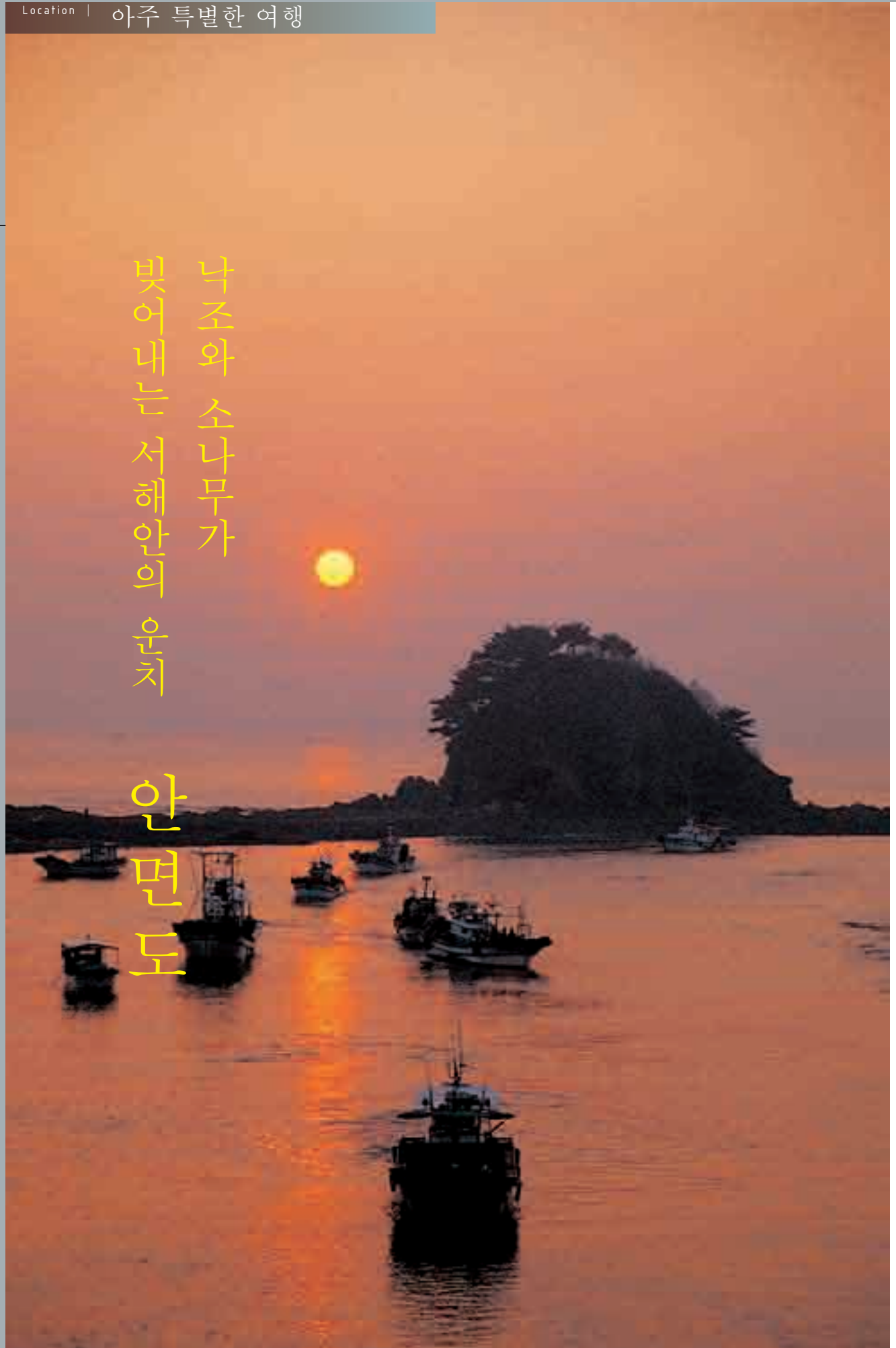
3. 건포도는 설탕물에 불리고, 당근은 강판에 갈아 준비한다.

4. 160도 기름에 당근을 튀겨 기름을 빼고 소스 재료를 섞어 양념 소스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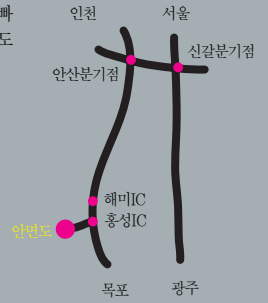
5. 접시에 채소, 피망, 건포도, 당근칩을 담고 소스를 뿌린다.

낙조와 소나무가
빛어내는 서해안의
운치

안면도



▲ 찾아가는 길 : 서해안 고속도로 흥성 나들목에서 빠져나와 서해안 방조제를 이용해 간월도를 지나 안면도까지 가면 된다.



(옆 페이지) '서해안 3대 낙조'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안면도의 낙조
(위) 안면도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산립전시관

(위) 곧게 자란 안면도의 소나무들
(가운데) 미식가들의 입맛을 자극하는 안면도의 왕새우
(아래) 간월암이 자리잡고 있는 간월도 새끼섬



섬이면서 섬이 아닌 곳 들쭉날쭉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서해안. 그 한가운데 마치 배꼽처럼 태안반도가 툭 튀어나와 있고, 그 끄트머리에 가늘고 긴 형태의 안면도가 자리잡고 있다. 섬의 관문 역할을 하는 안면대교에서 남쪽 끝에 있는 영목항까지는 약 28km. 동쪽으로는 최근 들어 철새 도래지로 유명해진 천수만, 서쪽으로는 크고 작은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섬이다.

안면도는 '섬이면서 섬이 아닌 곳'이다. 육지와 연결된 연륙교를 이용해 배가 아닌 자동차를 타고 쉽게 찾아갈 수 있기 때문. 안면도는 본래 태안반도의 남쪽 끝에 빼죽 튀어나온 '곶'이었다. 그러다가 360여 년 전인 1638년에 지금의 태안군 남면 신온리와 안면읍 창기리 사이를 뚫어 뱃길을 만들면서 팔자에도 없는 섬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때부터 안면도 사람들은 육지로 가기 위해 배를 이용해야만 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안면도가 육지였다는 사실도 점점 잊혀져 갔는데 마침내 지난 1970년에 신온리와 창기리를 잇는 연륙교가 놓이면서 다시 육지와 연결되었다. 지금은 몇 년 전에 새로 놓여진 산뜻한 안면대교가 안면도의 들머리 역할을 하고 있다.

낙조가 아름다운 꽃지 안면도 하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명물은 소나무다. 그것도 이른바 '안면송'이라 부르는 꺾질이 붉고 곧게 자란 토종 소나무들이 섬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다. 그러기에 안면도를 처음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방에 널려 있는 울창한 송림에 금세 압도당하고 만다. 예전에는 이곳 안면도에 왕실의 전용 소나무 숲이 있었다. 당시 왕실에서는 궁궐이나 부속 건물들을 짓기 위해 안면도의 소나무를 가져다 썼는데 소나무 숲을 지키기 위해 산지기를 두기도 했다고 한다.

안면도에서 소나무가 가장 많이 자라고 있는 곳으로는 안면도 자연휴양림을 첫 손에 꼽을 수 있다. 읍내에서 남쪽으로 3km쯤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는 휴양림 곳곳에는 그야말로 막혔던 숨통이 시원하게 뚫릴 정도로 크고 잘빠진 소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소나무 숲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자라는 수목원을 비롯해 삼림욕장, 통나무집, 전망대, 산책로 등이 잘 조성되어 있다.

안면도의 서쪽 바닷가에는 군데군데 백사장, 삼봉, 방포, 꽃지 등과 같은 해수욕장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섬 중간쯤에 자리잡고 있는 꽃지가 한적한 바닷가의 정취를 즐기기에 가장 좋다. 고운 모래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이곳은 해질 무렵에 찾는 것이 좋다. 이곳의 낙조는 변산의 채석강, 강화의 석모도와 더불어 '서해안의 3대 낙조'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근처에는 해마다 6~7월이면 노란 꽃이 탐스럽게 피어나는 모감주나무 군락지(천연기념물 제138호)가 자리잡고 있기도 하다.

꽃지 바닷가의 새로운 명물로는 '꽃다리'를 첫 손에 꼽을 수 있다. 인근의 방포항과 꽃지 바닷가를 연결하는 57.5m의 이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할매바위와 할아버바위, 그리고 이 두 바위 사이로 떨어지는 낙조가 무척 아름답다.

추억 속의 섬 간월도 안면도의 동쪽 바닷가는 천수만과 맞닿아 있다.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건너편의 홍성, 보령(대천) 등에 둘러싸여 있는 천수만은 최근 들어 우리나라 최대의 철새 도래지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1982년과 1984년에 각각 서해안 B지구 방조제와 A지구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철새들이 겨울을 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보금자리가 되었다.

천수만과 서해안 방조제 일대에서 볼 수 있는 철새의 종류는 크게 4~5종. '겨울의 진객'이라 불리는 고니를 비롯해서 청둥오리, 저어새, 황새, 흰고리수리 등이 동시에 날아오르는 모습은 실로 장관이다. 마치 커다란 먹구름이 몰려오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다. 그러나 이처럼 철새들이 떼지어 날아가는 모습을 보기는 그리 쉽지 않다. 철새들의 습성상 먹이를 찾는 시간 외에는 거의 활동하지 않기 때문. 따라서 이른 아침 동틀 무렵이나 해질 무렵이라야 떼지어 날아가는 철새들의 군무를 감상할 수 있다.

서해안 A지구와 B지구 방조제 사이에는 간월도가 자리잡고 있다. 물론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지금은 육지가 되어버린 '추억 속의 섬'이다. 간월도 하면 어리굴젓이 유명하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산 어리굴젓 중에서도 이곳 어리굴젓을 최고로 쳐준다.

간월도 앞바다에는 조그만 새끼섬이 하나 붙어 있다. 약 50m 길이의 자갈밭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새끼섬에는 간월암이 자리잡고 있다. 먼 옛날 무학대사가 이곳에서 '달을 보며 홀연히 도를 깨우쳤다' 해서 간월암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암자이다. 이곳 간월암에서 바라보는 천수만의 낙조와 달맛이가 무척 운치있다.

글과 사진 / 송일봉 여행작가

(왼쪽) 해질 무렵의 꽃지 바닷가

(오른쪽) 간월암에서 바라본 월출



SBS 미디어넷은 케이블 채널인 SBS 골프채널, SBS 스포츠채널, SBS 드라마플러스의 통합명칭입니다.

편성표 및 하이라이트는 SBS PR 사이트(<http://sbspr.sbs.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SBS 골프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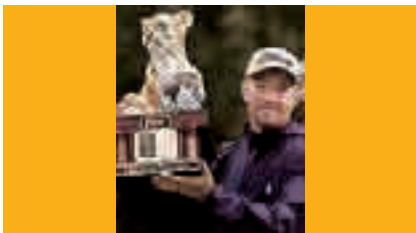
www.sbsgolf.com



자이 베스트멤버스 골프 - 정세호 감독 편

12월 7일(화) 밤 11시

〈청춘의 덫〉〈경찰특공대〉〈수사반장〉 등으로 유명한 정세호 PD가 출연해 골프를 혐오하기까지 했던 드라마 감독이 골프 삼매경에 빠지게 된 사연을 털어놓는다. 함께 작품을 해왔던 김수현 작가, 탤런트 김상경, 김석훈 씨와 주로 골프 라운드를 즐기시는 정세호 감독의 골프 에피소드도 들어본다.



2004 Target World Challenge 생중계

12월 10일(금)~13일(월) 새벽 5시

총상금 525만 달러의 특급 이벤트 타깃월드챌린지를 생중계한다. 캘리포니아 서우드 CC에서 나흘간 펼쳐지는 이 대회에는 지난해 챔피언 데이비스 러브 3세를 비롯해 타이거 우즈, 비제이 싱, 토드 헤밀턴, 페드릭 헤링턴 등 16명의 스타플레이어들이 출전한다.

SBS 스포츠채널

<http://sportsch.sbs.co.kr>



2004 NFL 생중계 - '그린베이vs.필라델피아'

12월 11일(토) 낮 12시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파워스포츠, NFL 정규리그를 SBS 스포츠채널에서 중계방송한다. 2004 NFL이 더욱 흥미로운 것은 한국계 하인스 워드 선수가 피츠버그 스틸러스에서 와이드리시버로 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SBS 스포츠채널에서는 수요일 오후 6시 매 경기 전에 〈NFL 100 배줄기기〉라는 가이드 프로그램도 방송해 NFL을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BS 족구

월요일 밤 11시

전국 아마추어 족구 최강부 8개 팀이 토너먼트로 치른 경기를 방송한다. 족구는 전통 스포츠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고 특히 실내에서도 즐길 수 있어 동계 스포츠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SBS 드라마플러스

www.drama.sbs.co.kr



모래시계

화~금요일 오전 9시 40분

카지노 대부의 외동딸 윤혜린(고현정), 가난을 딛고 소신있게 살아가는 젊은 검사 강우석(박상원), 정권과 연루된 조직의 일원으로 파란만장한 짧은 생을 마감하는 박태수(최민수), 윤혜린을 그림자처럼 보호하는 백재희(이정재) 등을 중심으로 80년대 격렬했던 학생운동과 광주민주화 항쟁 등을 긴박감있게 다룬 명작 드라마.



2004 인간시장

월~금요일 오전 6시

정의와 도덕이 힘을 잃어가는 세상을 향해 내지르는 젊은이 장총찬의 열정과 정의감이 펼쳐진다. 김상경, 박지윤, 김상중, 김소연, 한혜진 등이 출연한다.

www.sbs.co.kr 소식



러브스토리 공개 프로포즈

SBS 월화드라마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 홈페이지에서는 색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온라인 사연 접수를 통해 선정된 네티즌에게 온·오프라인 프로포즈를 지원한다. 짝사랑하는 사람이나 연인,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멋진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네티즌들은 오는 12월 12일 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을 접수하면 된다.

이 가운데 3명의 네티즌을 선정해 온라인상에 프로포즈 홈페이지를 별도 제작해주며, VOD 촬영 및 커플링·커플룩 등 프로포즈 선물을 지원한다. 이밖에 출연진들이 프로포즈를 지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오프라인 상의 프로포즈 장소도 제공한다.

내가 바로 토지 지식인

대하드라마 <토지> 홈페이지에서는 소설 <토지>에 대한 지식을 겨룰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이미 폭넓은 마니아 층을 형성하고 있는 소설 <토지>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 자신만 알고 있는 <토지>의 색다른 정보, <토지>의 배경이 되었던 곳을 직접 다녀온 경험 등, 소설 <토지>와 관련한 이야기면 어떤 것이든 공유할 수 있다. <토지> 홈페이지의 '황금들넉' 코너를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매일 '베스트 토지 지식인'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프라미스 명장면 명대사

SBS 특별기획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홈페이지에서는 네 명의 주인공과 조연들이 빛어내는 명장면 명대사를 공모한다. 게시판 '추억의 놀이터'에 말머리 '명장면 명대사'를 달고 드라마에서 인상깊었던 명장면 명대사를 응모하면 된다.

이번 이벤트는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며 참여한 사람 가운데 우수한 게재글을 선정해 극중 주인공들의 사랑을 매개하는 프라미스 목걸이를 선물로 제공한다.



2004 연기대상 '10대 스타' 인터넷 투표

12월 31일 발표되는 SBS 연기대상의 '10대 스타' 수상자 선정을 위한 인터넷 투표가 SBS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연기대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네티즌들의 인터넷 투표는 연기력 등의 심사과 더불어 최종적으로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터넷 투표는 오는 12월 10일 경부터 연기대상 방송 직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인터넷·모바일 통한 사랑의 성금 모으기

S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는 파워FM의 <사랑의 성금 모으기>라디오는 사랑입니다> 성탄절 특집방송을 인터넷, 모바일 등과 연계해 불우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이벤트로 실시한다.

오는 12월 24일 오전 9시부터 25일 새벽 3시까지 18시간 동안 진행되는 파워FM의 특집방송을 인터넷을 통해 화상 생중계하며 사이트내의 동영상 스킨을 클릭하면 1일 3회에 한해 1,000원씩 결제되어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적립되도록 했다. 이밖에도 모바일을 통해 사랑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용료 1,000원을 성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에서 모인 성금은 전액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달동네에 연탄을 보내주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새로운 게임 파크 오픈

www.sbs.co.kr 사이트의 게임 채널 내에 '게임 파크'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게임 파크에서는 '웃찾사 맞고', 'X맨 포커' 등의 게임을 선보이며 12월 중 '아침만만 홀라 게임'을 추가할 예정이다.

SBS는 게임 파크의 오픈에 따라 오는 12월 9일까지 맞고와 포커 게임을 설치하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한 단계 높은 레벨의 채널에 입장할 수 있는 게임 아이템을 제공한다.



스타의 모든 것을 한 자리에

www.sbs.co.kr 사이트 내 스타채널이 개편되어 '스타뉴스', '스타웰빙', '스타편', '스타랭크' 등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진 새로운 구성을 선보인다.

이번 개편에서는 네티즌들이 좋아하는 스타의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SBS 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스타와 관련된 뉴스 및 정보들을 하나로 모았으며 '스타투표', '퀴즈', '따라하기' 등 네티즌들의 참여의 장도 대폭 강화했다.

또 스타의 근황과 스타가 이야기하는 맛집, 패션, 건강 등 스타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텍스트에 한정되지 않고 동영상 콘텐츠를 강화했으며 사용자들이 손쉽게 테마별로 다양한 스타 클립을 검색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스타들의 클립들을 개인방송국 서비스인 마이스테이션에 담아서 보관하고 새로운 글에 첨부할 수도 있다.



홈페이지 스포츠채널 새단장

SBS 홈페이지(www.sbs.co.kr) 스포츠채널이 새 단장을 했다. 이번 개편으로 스포츠채널은 동영상 위주의 한정된 콘텐츠에서 기사와 동영상에 접목된 멀티 스포츠 콘텐츠로 크게 변화되었다.

특히 스포츠 마니아에게 전문가들의 분석 기사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 각 종목의 전문가들이 작성하는 수준 높은 분석 기사를 대폭 강화해 까다로워진 국내 스포티즌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했다. 각 종목의 전문가들이 게재하는 전문가 칼럼은 매일 업데이트되어 네티즌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국내에 폭넓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MLB, NBA 등의 해외 스포츠 소식을 대폭 강화해 마니아들의 눈높이를 맞출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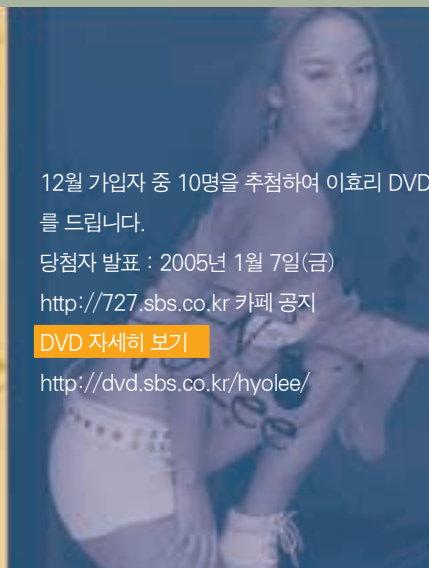
한편, 이번 개편에서는 스포츠 전문 사이트에서도 다루지 못했던 종목도 선보인다. 따라서 격투기와 경륜, 족구, 당구 등 일반인들에게 친숙하지만 기사와 동영상으로는 접하지 못했던 콘텐츠를 스포츠채널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12월의 727멤버십, 행운을 드려요

또 한 해가 지나가려 합니다. 쓸쓸하고 허전한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727 친구가 되세요. 12월 한 달 동안 727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여러분께 행복하고 즐거운 선물을 드릴게요.

→ made in Hyolee DVD 제공



12월 가입자 중 10명을 추첨하여 이효리 DVD를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 2005년 1월 7일(금)

<http://727.sbs.co.kr> 카페 공지

DVD 자세히 보기

<http://dvd.sbs.co.kr/hyolee/>

→ 무비월드 월정액관 이용권 제공



12월 가입자 중 10명을 추첨하여 무비월드 월정액관 이용권을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 2005년 1월 7일 (금)

<http://727.sbs.co.kr> 카페 공지

영화 월정액 자세히 보기

<http://movie.sbs.co.kr/>

→ 여행스케치 콘서트 초대권 제공



727회원이면 누구나 여행스케치 콘서트 '소리쟁이' 초대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초대 이벤트 자세히 보기

<http://727.sbs.co.kr/>

영화 특급 (일요일 밤 11시 45분)



미 마이셀프 앤드 아이린 Me, Myself & Irene

감독 / 바비 패럴리 · 피터 패럴리 주연 / 짐 캐리 · 르네 켈워거 단장PD / 배숙현 방송 / 12월 5일

17년 경력의 로드 아일랜드 베테랑 경찰 찰리(짐 캐리 분). 그는 평소에는 온순하고 성실하며 항상 남을 돕는, 아주 착하디 착한 세 명의 흑인 아들을 둔 백인 아빠다. 그런데 그의 착한 성격이 어느날 치욕적인 모욕을 당하면서 포악한 성격을 가진 행크로 변하고 만다. 찰리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사람, 그가 바로 행크인 것이다. 그는 거친 욕을 해대며, 인정이란고는 눈곱 만큼도 없는, 섹스를 너무나 좋아하는 포악한 성격의 소유자로 약발이 떨어지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이다. 찰리와 행크는 서로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 그러던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연행된 아이린(르네 켈워거 분)이 나타나면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행크와 찰리, 몸은 하나지만 각기 다른 성격의 두 남자는 아이린이라는 한 여자를 사이에 두고 사랑을 얻기 위해 서로 피투기는 전쟁을 시작해야만 한다.



블레이드 Blade

감독 / 스티븐 노링턴 주연 / 웨슬리 스나입스 · 스티븐 도프 단장PD / 김박 방송 / 12월 12일

뱀파이어에게 물린 출산 직전의 산모가 병원 응급실로 실려온다. 끝내 산모는 사망하고 그녀의 몸 속에 스며든 뱀파이어의 피는 아이의 운명을 뒤바꾼다. 반은 인간, 반은 뱀파이어로 태어난 비극적인 운명의 블레이드(웨슬리 스나입스 분)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한 뱀프에 대해 피의 복수를 맹세한다. 인간세계에서 새로운 비밀국가를 형성, 인간과 은밀하게 섞여 살아가고 있는 뱀프들. 지역 지구장을 맡고 있는 혼혈종 프로스트(스티븐 도프 분)는 인간세계와 지하세계를 모두 정복하기 위해 야심찬 음모에 착수한다. 프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인간과 뱀프의 우성 유전인자만을 이어 받은 혼혈종 블레이드이다. 블레이드는 자신만의 은신처에서 혈액 전문의와 무기 제조상과 함께 뱀프 살상용 무기들을 개발하고 뱀프 세력을 서서히 와해시킨다.



신투침영 Downtown Torpedoes

감독 / 진덕산 주연 / 음성무 · 양채니 단장PD / 김박 방송 / 12월 19일

독일의 한 지하철 공사의 기밀파일을 빼낸 전문 산업스파이 자칼(음성무 분)과 캐쉬(진소춘 분)는 들뜬 마음으로 홍콩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이내 홍콩 보안국에 체포되고, 보안국 수석정보원 스탠리(방종신 분)는 샘(양채니 분), 타이탄(양합희 분) 등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팀을 구성해 이란에서 흘러나온 정교한 위조지폐 인쇄원판을 영국 정보국으로부터 빼내 올 것을 강요한다. 5명으로 팀을 구성한 자칼팀은 영국 정보국 홍콩지부장의 음모를 밝혀내고 원판을 되찾는다. 그러나 이 과정에 팀원 한 명이 희생당한다. 그리고 원판은 가짜로 드러난다. 더욱이 갇힌 신세가 된 이들은 스탠리를 의심하게 되고, 결국 이 모든 것은 스탠리의 위장극으로 밝혀진다. 구사일생의 위기 끝에 탈출에 성공한 자칼팀은 추격전을 벌여 인쇄 원판을 회수해 영국 정보국에 돌려주고 임무를 마친다.



아트 오브 워 The Art of War

감독 / 크리스찬 듀거이 주연 / 웨슬리 스나입스 · 앤 아처 단장PD / 김하정 방송 / 12월 26일

미국 플로리다 제도에서 썩어가는 베트남 난민의 시체를 가득 실은 채 표류 중인 배 한 척이 발견되고 이 잔혹한 대학살에 UN 사무총장이 연루됐음을 보여주는 비디오가 공개된다. 이에 UN의 실질적인 권력자 혹은 모든 것이 UN과 중국과의 무역체결에 반대하는 세력에 의한 음모라는 결론을 내리고 UN 최고의 비밀요원 쇼(웨슬리 스나입스 분)를 불러들여 비밀리에 수사를 벌인다. 날은 사건의 가장 큰 옹의자인 UN 중국대사 원의 주위에서 위장수사를 하지만 파티에 참석한 원이 예상치 못했던 암살을 당하고, 암살범으로 몰린 쇼는 경찰에 체포된다. 신분을 절대 밝힐 수 없는 쇼는 이송 도중 탈출해 자신의 팀원들을 만나러 가지만, 이미 팀원들은 처절하게 살해당한 후였다. 동료들의 죽음과 계속되는 테러의 위협 속에 쇼는 누군가가 자신들을 알고 있었고 또한 자신들의 작전을 역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月	火	水	
AM 6:00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선택 9:00 체험! 지구촌 홈스테이 9:30 김승현 · 정은아의 좋은 아침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10 여자 플러스 11:30 시청자 제보 - 물은 생명이다 11:35 SBS 건강스페셜	AM 6:00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선택 9:00 체험! 지구촌 홈스테이 9:30 김승현 · 정은아의 좋은 아침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10 여자 플러스 11:30 시청자 제보 - 물은 생명이다 11:35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AM 6:00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선택 9:00 체험! 지구촌 홈스테이 9:30 김승현 · 정은아의 좋은 아침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10 여자 플러스 11:30 시청자 제보 - 물은 생명이다 11:35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PM 4:00 SBS 뉴스 4:10 오픈 스튜디오 꿈나무 이야기 4:50 알쏭달쏭 빅터 5:00 아쿠아 키즈 5:30 유희왕 6:00 SBS 뉴스퍼레이드 6:20 생방송 투데이 7:05 백만불 미스터리 8:00 SBS 8 뉴스	PM 4:00 SBS 뉴스 4:10 오픈 스튜디오 그린 세상 4:50 알쏭달쏭 빅터 5:00 아쿠아 키즈 5:30 웅의 전설 레전더 6:00 SBS 뉴스퍼레이드 6:20 생방송 투데이 7:05 체인징 유	PM 12:25 드라마 특선 토지 4:00 SBS 뉴스 4:10 오픈 스튜디오 실버 만세 4:50 알쏭달쏭 빅터 5:00 꼬마탐정 가제트	
 8:45 오늘의 스포츠 8:55 주간시트콤 혼자가 아니야 9:55 월화드라마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	 8:00 SBS 8 뉴스 8:45 오늘의 스포츠 8:55 뉴스추적 9:55 월화드라마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 11:05 김용만 신동엽의 즐겨찾기	 5:30 베리베리 유우유우 6:00 SBS 뉴스퍼레이드 6:20 생방송 투데이 7:05 해결! 돈이 보인다 8:00 SBS 8 뉴스 8:45 오늘의 스포츠 8:55 생방송 TV연예 9:55 드라마스페셜 유리화	
 11:05 야심만만! 만 명에게 물었습니다		 11:05 수요토론 이것이 여론이다	
AM 0:15 SBS 나이트라인 0:45 스포츠 와이드 0:55 SBS 골프	AM 0:15 SBS 나이트라인 0:45 스포츠 와이드 0:55 SBS 스페셜	AM 0:15 SBS 나이트라인 0:45 스포츠 와이드 0:55 SBS 스포츠 중계석	

木

AM

- 6:00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선택
9:00 체험! 지구촌 홈스테이
9:30 김승현 · 정은아의 좋은 아침



-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10 여자 플러스
11:30 시청자 제보 - 물은 생명이다
11:35 TV 아름다운 가게

PM

- 12:25 드라마 특선 토지
4:00 SBS 뉴스
4:10 오픈 스튜디오 사랑의 징검다리
4:50 알쏭달쏭 빅터
5:00 꼬마탐정 가제트
5:30 베리베리 유우유우
6:00 SBS 뉴스퍼레이드
6:20 생방송 투데이
7:05 김국진 김용만의 코치
8:00 SBS 8 뉴스
8:45 오늘의 스포츠
8: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 9:55 드라마스페셜 유리화
11:05 웃음을 찾는 사람들

AM

- 0:15 SBS 나이트라인
0:45 스포츠 와이드
0:55 문화가 중계

金

AM

- 6:00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 8:30 아침연속극 선택
9:00 체험! 지구촌 홈스테이
9:30 김승현 · 정은아의 좋은 아침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10 여자 플러스
11:30 시청자 제보 - 물은 생명이다
11:35 금요 컬처클럽

PM

- 4:00 SBS 뉴스
4:10 오픈 스튜디오 여성시대
4:50 금요 만화특선
5:35 물은 생명이다
6:00 SBS 뉴스퍼레이드
6:20 생방송 투데이
7:05 진실게임
8:00 SBS 8 뉴스
8:45 오늘의 스포츠
8:55 아이엠



- 9:55 금요드라마 아내의 반란
11:55 경제 인사이드

AM

- 0:15 SBS 나이트라인
0:45 스포츠 와이드
0:55 시네클럽

土

AM

- 6:00 토요일특집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선택
9:00 잘먹고 잘사는 법
11:00 낭만콘서트



PM

- 12:00 SBS 뉴스
12:10 열린 TV 시청자 세상
1:10 재미있는 TV천국
1:50 스포츠 중계 및 재방송
3:50 시트콤 스페셜
4:50 SBS 뉴스
5:00 학교전설
5:50 실제상황! 토요일



- 6:50 솔로몬의 선택
8:00 SBS 8 뉴스
8:35 오늘의 스포츠
8:45 대하드라마 토지
9:45 특별기획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10:55 그것이 알고 싶다
11:5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AM

- 0:55 게임쇼! 즐거운 세상

日

AM

- 6:00 일요특집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50 시사진단
8:40 도전! 1000곡
9:40 TV 동물농장
10:50 결정! 맛 대 맛



PM

- 12:00 SBS 뉴스
12:10 접속! 무비월드
1:10 순간포착 스페셜
1:50 스포츠중계 및 재방송
3:50 생방송 인기가요
4:50 SBS 뉴스
5:00 특명! 아빠의 도전
6:00 일요일이 좋다
8:00 SBS 8 뉴스
8:35 오늘의 스포츠
8:45 대하드라마 토지



- 9:45 특별기획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10:55 세븐데이즈
11:45 영화특급

AM

- 1:35 스포츠 빅 이벤트

Love FM

103.5MHz 792KHz

* 월~일요일 05:00~24:00 매시 정각에 뉴스

月~土

AM

- 5:05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6:05 하남신의 SBS 전망대(1부)
7:00 아침 종합뉴스
7:10 하남신의 SBS 전망대(2부)
8:00 SBS 뉴스레이더
8:30 손범규의 스포츠브리핑
8:50 라디오 웰빙한방
9:05 손숙 · 김범수의 아름다운 세상
11:05 설운도의 차차차

PM

- 12:00 정오 종합뉴스
12:20 배철수 · 전영미의 와와쇼



- 2:00 SBS 뉴스라인
2:20 이택림 소찬휘의 라디오천하
4:05 DJ 처리와 함께 아자! 아자!
6:00 저녁 종합뉴스
6:10 김홍국 · 박미선의 대한민국 특급쇼
8:00 SBS 8 뉴스(TV수중계)
8:30 이봉원의 으랏차차 라디오
10:05 유리상자의 뷰티플레이즈



AM

- 0:05 서민정의 기쁜우리 젊은날
2:00 김지연의 뮤직 토피아
4:00 김정일의 쿵쾅! 노래는 트로트

日

AM

- 5:05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6:05 이명천의 광고채널 1035
7:00 아침 종합뉴스
7:10 생방송 러브러브 선데이
9:05 손숙 · 김범수의 아름다운 세상
11:05 설운도의 차차차



PM

- 12:00 낮 종합뉴스
12:10 배철수 · 전영미의 와와쇼
2:05 이택림 소찬휘의 라디오천하
4:05 DJ 처리와 함께 아자! 아자!
6:00 저녁 종합뉴스
6:10 김홍국 · 박미선의 대한민국 특급쇼
8:00 SBS 8 뉴스(TV수중계)
8:30 이봉원의 으랏차차 라디오
10:05 유리상자의 뷰티플레이즈

AM

- 0:05 서민정의 기쁜우리 젊은날



- 2:00 김지연의 뮤직 토피아
4:00 김정일의 쿵쾅! 노래는 트로트

Power FM

107.7MHz

月~日

AM

- 5:00 송영길의 트로트 하이웨이
6:00 이해승의 모닝 익스프레스
7:00 이숙영의 파워 FM
9:00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11:00 그대 곁에 오미희입니다

PM

- 12:00 최화정의 파워타임



- 2:00 이현우의 뮤직라이브
4:00 허수경의 가요 풍경
6:00 박수현의 러브게임
8:00 장근석의 영 스트리트
10:00 박용하의 10!10! 클럽

AM

- 0:00 정지영의 스위트 뮤직박스
2:00 남궁연의 고릴라디오
3:00 이병희의 사운드 오브 뮤직



- 4:00 이현경의 예스터데이

만약 갑자기 닥친 불행으로 멀쩡했던 두 눈을 잃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상상도 하고 싶지 않겠지만 남의 일로만 치부하기엔 우리 곳곳에 그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2005 신년특집 드라마 <내 사랑 토람이>의 실제 주인공인 전숙연 씨도 그랬다. 어느날 우연히 찾아온 사고가 두 아이의 엄마, 한 남자의 아내로 소박한 삶을 살아가던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것이다.

신년특집 드라마 <내 사랑 토람이>는 사고로 후천적 시각장애우가 된 전숙연 씨(하희라 분) 가족과 안내견 '토람이'의 사랑과 헌신을 담은 드라마다.

연출을 맡은 한정환 PD는 “인생이라는 가파른 길을 걸어갈 때 함께 걸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 그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있음을 말하고 싶다”고 연출 변을 밝힌다. 다가오는 새해 아침, 조건 없는 가족애에 흠뻑 빠져 따뜻한 마음으로 2005년을 설계해봐도 좋을 듯하다.

신년특집 드라마 <내 사랑 토람이> 절망은 희망의 또다른 이름입니다

극본 / 윤영미
연출 / 한정환
촬영 / 하희라 · 김영호
방송 / 2005년 1월 1일 예정

- 4 **SBS 목동 디지털시대 개막 | 목동 신사옥 첫방송**
새해 첫날 SBS 목동 방송시대 개막을 알리는 첫방송
- 10 **SBS 2004 新사옥 대기화**
새로운 출발과 함께 재도약을 선언하는 SBS의 꿈과 비전을 그대로 담고 있는 대기화
- 14 **신년특집 다큐멘터리 | SBS 2004 신년대기획 「환경의 역습」**
도시인의 생활터전인 삶의 환경이 우리 몸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내 대안을 제시하는 최초의 다큐멘터리 보고서!
- 18 **새 드라마 | 특별기획 「빨리에서 생긴 일」**
하지원, 소지섭, 조인성, 박예진 등 화려한 출연진이 그려가게 될 사랑과 욕망의 드라마
- 24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회귀질화와 장애로 인해 음지에서 숨죽이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 27 **프로그램 탐방 | 「TV 장학회」**
오락과 교양, 일반적인 상식을 뒤엎는 정보 패레이드.
- 30 **「빨리에서 생긴 일」의 하지원**
다시 태어난대도 배우가 될 거라고 말하는 하지원
- 34 **라디오 세상 | 러브 FM 「김흥국 · 박미선의 대한민국 특급쇼」**
두 진행자의 각자지컬한 너스레로 유쾌한 퇴근길을 열어주는, 서민에 의한, 서민을 위한 방송
- 36 **Jump Up 2004! | 「천국의 계단」의 김태희**
연기변신의 절정을 달리고 있는 김태희의 새해 목표는 배우로서의 '섬세함과 순수함'을 갖추는 것!
- 38 **Jump Up 2004! | 「웃음을 찾는 사람들」의 김늘레**
인기정상을 달리고 있는 개그맨 김늘레의 개그아이디어 포인트와 새해 소망을 들어본다.
- 40 SBS 미디어넷 | 도약의 2004년!
42 클릭! 인터넷
44 727 멤버십 1월 소식
45 「2003 SBS 개그콘서트」의 수상자들
46 TV & 라디오 편성표
49 방송과 영화의 만남 | 1월의 개봉영화 「빙우」
50 설날 연휴를 SBS 영화와 함께

- 4 **미리보는 SBS 목동 신사옥**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을 갖추고 시청자들에게 한층 더 고품격, 고화질의 방송을 선보일 SBS 목동 신사옥을 소개한다.
- 12 **여의도를 떠나며**
지난 14년 동안의 여의도시대를 마감하고 오는 3월 목동시대를 개막하는 SBS가 그동안 사랑해 주신 시청자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낸다.
- 14 **새 프로그램 | 드라마마세썰 「햇빛 쏟아지다」**
친구 같은 남자, 운명 같은 사랑. 여자는 과연 누구를 선택할까?
- 20 **새 프로그램 | 아침연속극 「청춘」**
평화롭던 인생의 한 가운데에서 어느 순간 불행의 교차로에 서게 된 여인.
- 28 **시선집중 | 「아침만만」 MC 4인방**
강호동, 박수홍, 김재동, 이유진.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일 때보다 함께일 때, 더욱 잘 어우러지고 그 빛깔 또한 강렬해진다. 「아침만만」의 MC 4인방을 소개한다.
- 30 **큐 스튜디오 | 「최수종쇼」**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기쁜 우리 나라방」은 '동성로 시스템즈'라는 일반인 스타를 탄생시켰다
- 33 **초점 | 「환경의 역습」이 우리에게 남긴 것**
절약 없이 진행되는 온갖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이제 인간의 생명을 죽이고 있다
- 36 **새내기 | SBS 기상 캐스터 섯**
신인 기상 캐스터 황현주, 우혜진, 유지수. 각기 다른 각오로 방송에 임하는 이들 3인의 SBS 기상 캐스터를 만나 본다.
- 38 **PD노트 | 반달곰 동면 인터넷 생중계**
곰의 생태에서 가장 신비한 현상 중의 하나인 동면을 인공 동면 굴을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다
- 40 SBS 골프채널 | 세계 3대 투어 및 주요 경기 독점 생중계
42 클릭! 인터넷
44 727 멤버십 2월 소식
45 방송과 영화의 만남 | 2월의 개봉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46 TV & 라디오 편성표
49 라디오 세상! | SBS 신사옥 라디오 스튜디오
50 이달의 영화특급

- 4 **목동 디지털 시대 개막**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다!
SBS가 2004년 3월 1일 목동시대 완전 개막을 알리는 첫 전파를 발사하며 역사적인 디지털 시대를 열었다. 이로써 SBS는 첨단 방송기지 목동 신사옥에서 디지털방송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되었다. 그 역사의 현장을 소개한다.
- 10 **디지털 시대의 중심 SBS 뉴스**
뉴스의 새 지평을 연다!
SBS는 목동 신사옥 이전과 함께 시청자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다가오는 디지털시대를 리드해나가기 위해 새롭게 달라진 뉴스를 선보인다. 「디지털시대의 중심 SBS」라는 개칭 프레임즈 아래 달라진 SBS 뉴스를 소개한다.
- 20 **새 드라마 | 월화특별기획 「2004 인간시장」**
인간시장 심판하러 장충찬이 돌아왔다!
- 26 **새 드라마 | 특별기획 「폭풍속으로」**
진한 형제애와 애뜻한 사랑, 폭풍 같은 서사시
- 32 **시선집중 | 「생방송 모닝와이드」, 새 MC**
세상의 모든 아침, 우리들이 전합니다!
- 34 **특파원보고 | 파리로 떠나며**
유럽의 저력에서 한국의 미래를 찾는다
- 36 **이주형 기자의 문화코드**
한국영화,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 이주가 문제다
- 38 **아주 특별한 여행**
봄을 찾아 떠나는 꽃길 나들이
- 40 SBS 골프채널 & 미디어넷 하이лай트
42 클릭! 인터넷 & 727 멤버십 3월 소식
45 방송과 영화의 만남 | 3월의 개봉 영화 「...홍반장」
46 TV & 라디오 편성표
49 새 봄, SBS 새 프로그램
50 이달의 영화특급

SBS magazine 2004 연간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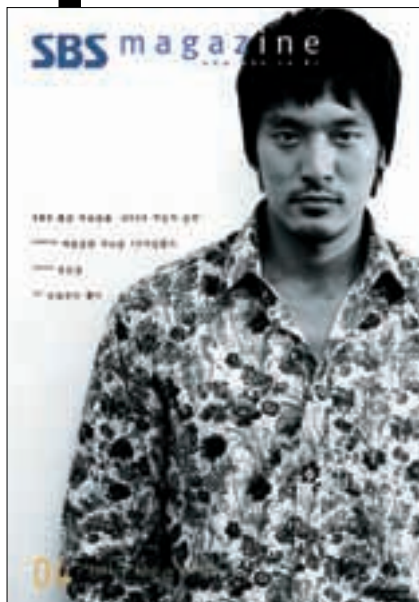


- 4 **축시**
讀! SBS 木洞 新社屋
- 6 **드라마페스티벌 <파란만장 미스김 10억만들기>**
돈!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여...
- 12 **대하드라마 <장길산>**
'백성들의 나라'는 아직 멀었는가!
- 18 **일요 버라이어티 <일요일이 좋다>**
웃음의 파이터로 나섰다! 최강 MC 6인방
- 22 **주말극장 <작은 아씨들>**
이 세상에 딸로 태어나 여자로 산다는 것은...
- 24 **SBS 총선 개표방송 / 2004 국민의 선택**
새 시대로 이끄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잡이
- 28 **커버스토리 / <폭풍속으로> 김민준**
"꿈임없는 설렘으로 나를 비우고 또 채운다"
- 32 **SBS 창작 3D 애니메이션 <벌퍼킹 재퍼>**
바람처럼 불꽃처럼, 통쾌한 파워레이싱의 세계!
- 34 **새 MC / <절속 무비월드> 김범수 & 박진희**
"흥미로운 영화세상, 함께 접목하죠?"
- 36 **특집생방송 <나눔원정대 365>**
나누는 마음, 사람만이 누리는 커다란 축복
- 40 **파워FM <남궁연의 고릴라디오>**
옆집 오빠 혹은 삼촌과의 즐거운 수다
- 42 **이주형 기자의 문화코드**
"옛날의 노랫말, 그속에서 놀던 때가 그림습니다"
- 44 **아주 특별한 여행 / 외암리 민속마을**
고향, 돌담길 모퉁이에서 옛 사람을 만나다
- 46 **SBS 골프채널 <생방송 골프투데이>**
심층 취재, 살아있는 정보, 골프뉴스의 새버람
- 48 **클릭! 인터넷**
SBSi & 727 멤버십 소식
- 51 **방송과 영화의 만남**
4월 개봉작 <바람의 전설>
- 52 **TV & 라디오 편성표**
4월의 SBS 주간 편성
- 55 **SBS 미디어넷 하이лай트**
골프채널 · 스포츠채널 · 드라마플러스
- 56 **시청자 코너**
<2004 인간시장>과 <폭풍속으로>를 보고
- 58 **4월의 SBS 영화**
특선영화 & 영화특급

- 4 **대하드라마 <장길산>**
앞사가는 것이 아닌, 함께 가는 자가 되어라!
- 10 **서울디지털포럼 2004**
멋진 신세계, 세상을 바꾸는 디지털 컨버전스 혁명
- 12 **볼, SBS TV 새 프로그램**
생활밀착, 가족중심, 나눔의 정신 가득 충전!
- 14 **주말극장 <작은 아씨들>**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것들
- 20 **일일드라마 <소풍가는 여자>**
자신을 찾아가는 한 여자의 가슴 떠스한 여정
- 26 **SBS 스타스트리트 탄생**
"별들의 거리로 놀러오세요!"
- 28 **커버스토리 / <장길산> 유오성**
큰 배우, 드디어 큰 작품에서 날개펴다
- 32 **유망주 / 아나운서 정미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공기처럼 재즈처럼
- 34 **SBS 라디오 새 프로그램 & 새 DJ**
"라디오의 경쟁력, 확실히 보여 드립니다"
- 38 **기자수첩**
총선과 함께 떠나 총선과 함께 돌아오다
- 40 **이주형 기자의 문화코드**
엘레강스하고 하이릴리티한 그대, 행복하십니까?
- 42 **아주 특별한 여행 / 경복 청송 주왕산**
계곡, 폭포, 바위가 어우러진 멋진 산
- 44 **SBS 스포츠채널의 웰빙 프로그램**
웰빙문화, 웰빙 스포츠로 완성한다
- 46 **SBS 미디어넷 하이лай트**
골프채널 · 스포츠채널 · 드라마플러스
- 47 **이벤트**
SBS 아트라운 페스티벌
- 48 **클릭! 인터넷**
SBSi & 727 멤버십 소식
- 51 **SBS 아카데미로 오세요**
SBS 아카데미 제18기 수강생 모집
- 52 **TV & 라디오 편성표**
5월의 SBS 주간 편성
- 55 **5월의 SBS 영화**
영화특급
- 56 **시청자가 주인공입니다**
<일요일이 좋다> - '사랑의 위탁모'를 보고
- 57 **SBS 소식**
휴스턴 국제필름페스티벌 대상 수상

- 6 **드라마페스티벌 <섬마을 선생님>**
그 섬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 12 **특별기획 <파리의 연인>**
파리에서 나는 꿈꾸던 사랑을 얻었네
- 18 **화요 버라이어티 <김용만 신동엽의 즐겨찾기>**
두 남자가 만들어내는 환상의 토크 시스템
- 22 **특집 / '서울디지털포럼 2004' 리뷰**
SBS, 디지털의 중심에 우뚝 서다
- 28 **초점 / <장길산>의 두 여인**
아, 그토록 비련한 사랑이여!
- 32 **커버스토리 / <파리의 연인> 김정은**
이제는 사랑을 하고 싶은 '세상의 연인'
- 36 **유망주 / 탤런트 이완**
웅충깊은 눈매에 마음을 뺏기다
- 38 **신인탐색 / 탤런트 김디에나**
꿈이 많아 더욱 눈부신 청춘
- 40 **러브FM <유리상자의 뷰티플레이즈>**
"아름다운 날엔 뷰티플레이즈에 즐겨찾기 하세요"
- 42 **미리 보는 SBS 새 캐릭터**
새 생명의 탄생에 부치는 아빠의 소망
- 44 **이주형 기자의 문화코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우리말
- 46 **아주 특별한 여행 / 칠원**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이 공존하는 땅
- 49 **SBS 미디어넷 하이лай트**
골프채널 · 스포츠채널 · 드라마플러스
- 50 **슈퍼모델 특집다큐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패션 뷰티와 디지털의 새로운 만남
- 52 **클릭! 인터넷**
SBSi & 727 멤버십 소식
- 55 **방송과 영화의 만남 / <아는 여자>**
웃어보자 코미디, 느껴보자 사랑!
- 56 **TV & 라디오 편성표**
6월의 SBS 주간 편성
- 59 **6월의 SBS 영화**
영화특급
- 60 **시청자가 주인공입니다**
대하드라마 <장길산>을 보고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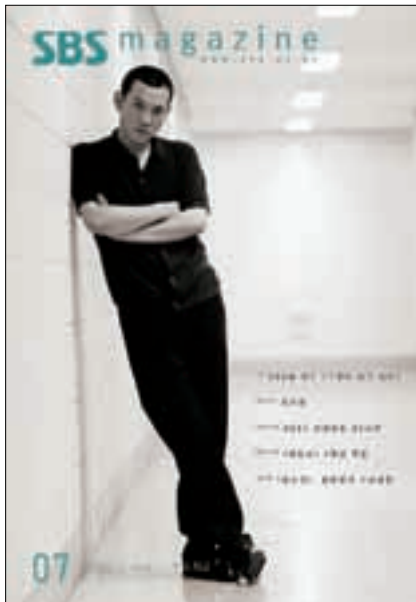


5



6





- 6 **특집 / 500회 맞은 〈그것이 알고 싶다〉**
두려움없이, 진실을 향해 전진하라!

- 16 **〈웃음을 찾는 사람들〉 방송 1주년**
“웃찾사, 코미디 왕국의 명예 다시 찾겠다”

- 20 **초점 / 〈파리의 연인〉 인기 비결**
그들의 인기, 알고 보니 이유 있었네

- 24 **채널고정 / 〈장길산〉의 분신, 활빈당 소두령들**
“내가 곧 장길산이다!”

- 30 **특별기획 〈2004 기아체험 24시간〉**
우리의 관심,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 33 **〈TV 아름다운 가계〉**
“작은 사람이 모인 곳, TV 장터로 오세요”

- 36 **커버스토리 / 〈그것이 알고 싶다〉 정진영**
내가 걸어가는 곳, 거기 나의 길이 있었다

- 40 **스포트라이트 / 댄트 한지혜**
스무살, 세상을 물이다

- 42 **유망주 / 〈작은 아씨들〉의 이윤미 & 후니훈**
어른처럼 상큼하게, 어른처럼 뜨겁게

- 44 **러브FM 〈박용하의 10!10!클럽〉**
“라디오에 실어보낸 꿈, 텐텐기기로 이루어졌죠”

- 46 **이주형의 문화코드**
슈렉, 컬러 코드를 뒤집다

- 48 **김수현의 공연산책**
나팔꽃이 피었네, 작게 낮게 느끼게...

- 50 **은지향의 음악종경**
은PD, 80년대의 동아기회를 추억하다

- 52 **아주 특별한 여행**
한적한 여름 피서지를 찾아서

- 55 **SBS 미디어넷 하이라이트**
골프채널 · 스포츠채널 · 드라마플러스

- 56 **SBS 스포츠채널**
2004년 여름, 아시아가 축구로 뜨거워진다!

- 58 **클릭! 인터넷**
SBSi & 727 멤버십 소식

- 62 **TV & 라디오 편성표**
7월의 SBS 주간 편성

- 65 **7월의 SBS 영화**
영화특급

- 6 **특집 / SBS 아테네올림픽방송**
가자 아테네! 이기가 대한민국! 올림픽방송은 SBS!

- 14 **커버스토리 / 올림픽방송 메인MC 정성근 & 이해승 앵커**
“방송올림픽 금메달을 기대하세요”

- 18 **드라마스페셜 〈형수님은 열아홉〉**
“어른들은 모를거야, 쿨~한 우리 사랑!”

- 24 **아침연속극 〈선택〉**
사랑한다면 아들처럼...

- 30 **특별기획 〈매직〉**
사랑, 그 위대한 마술에 대하여...

- 32 **300회 맞은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진 제보 프로그램의 원조

- 38 **스포트라이트 / 댄트로 변신한 가수 윤계상**
“그래! 이게 바로 진짜 내 모습이야!”

- 40 **유망주 / 〈웃찾사〉의 짹짜이와 끄끄이, 장경희 & 김신영**
“모습은 달라도 마음만은 쌍둥이죠”

- 42 **SBS 캐릭터 ‘고미’ 탄생**
고미, 너를 알고 싶다!

- 44 **파워FM 〈장근석의 영스트리트〉**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재밌을걸?”

- 46 **이주형의 문화코드**
편리한 씨의 편리한 생활

- 48 **김수현의 공연산책**
“다름”의 미학이 없는 순위만능 사회

- 50 **은지향의 음악종경**
더운 여름, 시원한 음악 한 잔 어때요?

- 52 **맛있는 리서치**
방콕족을 위한 맛있는 바캉스

- 54 **아주 특별한 여행**
원시림 속 여름 낙원, 방태산 자연휴양림

- 57 **SBS 미디어넷 하이라이트**
골프채널 · 스포츠채널 · 드라마플러스

- 58 **SBS 드라마플러스 / 슈퍼모델 특집 〈역동하는 꿈〉**
슈퍼모델, 꿈을 향해 역동하는 아름다운 몸짓

- 60 **클릭! 인터넷**
SBSi & 727 멤버십 소식

- 64 **TV & 라디오 편성표**
8월의 SBS 주간 편성

- 67 **8월의 SBS 영화**
특선영화 & 영화특급

- 68 **시청자가 주인공이다**
새 드라마 〈형수님은 열아홉〉을 보고

- 8 **특집 / SBS 아테네올림픽방송 결산**
SBS, 스포츠 방송의 역사 새로 쓰다!

- 14 **특별기획 〈매직〉**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사랑이라는 이름의 마술...

- 20 **드라마스페셜 〈남자가 사랑할 때〉**
“갸리고 비개기도 사랑! 너를 놓지 않겠어”

- 26 **한가위 특집드라마**
〈광식의 노래〉 & 〈4명의 뎡수들〉

- 30 **200회 맞은 〈도전! 1000곡〉**
일요일 아침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 프로그램

- 34 **화제의 코너 / 〈일요일이 좋다〉의 ‘대결! 반전드라마’**
재치있는 반전, 유쾌한 두뇌게임

- 36 **커버스토리 / 〈매직〉 강동원**
얼음과 불꽃, 섬세함 속에 섞여들다

- 40 **스포트라이트 / 〈장길산〉의 유수영**
여린듯 강렬한, 냉정한듯 따뜻한 눈빛

- 42 **500회 맞은 파워FM 〈이현우의 뮤직라이브〉**
“자, 우리 모두 현우를 사랑합시다!”

- 46 **이주형의 문화코드**
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보다 색시하게

- 48 **김수현의 공연산책**
이 어린 거장의 몸보이는 철학적 사유

- 50 **은지향의 음악종경**
가을을 맞는 나만의 컴필레이션

- 52 **맛있는 리서치**
여름동안 지친 심신, 먹어서 달래보자

- 54 **아주 특별한 여행**
천탑천불의 전설 고이 간직한 평화로운 고장, 화순

- 57 **SBS 미디어넷 하이라이트**
골프채널 · 스포츠채널 · 드라마플러스

- 58 **SBS 골프채널 / 생방송 〈SBS 골프아카데미〉**
시청자가 원하는 골프레슨, 라이브로 생생하게!

- 60 **클릭! 인터넷**
SBSi & 727 멤버십 소식

- 63 **방송과 영화의 만남**
〈귀신이 산다〉

- 64 **TV & 라디오 편성표**
9월의 SBS 주간 편성

- 67 **9월의 SBS 영화**
한가위 특선 대작 세 편

- 68 **SBS 소식**
〈파리의 연인〉 DVD 출시 & 엘튼 존 내한공연

10



- 8 SBS TV 가을 프로그램 개편
2004년 가을, SBS 프로그램이 더욱 풍부하고 깊어집니다
- 10 금요드라마 〈내안의 반란〉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 16 주간시트콤 〈혼자가 아니야〉
소심한 인간과 통큰 귀신의 기막힌 동거일기
- 22 특집 / '미러한국 리포트-고령화 충격, 활로는 없는가'
'빨리 늙는 한국', 이대로 둘 것인가
- 28 커버스토리 / 〈남자가 사랑할 때〉 박정아
길을 시작되었다, 이제 그 길을 걷는다
- 32 한수진 기자가 만난 사람 / 〈수요토론 이것이 여론이다〉 MC 김형민
치열하게 쏘아온 관록, 제 길을 잃지 않는 여유
- 36 스포트라이트 / 〈매직〉의 양진우
새로 만난, 그러나 오래 본 듯한 사람
- 38 유망주 / 〈혼자가 아니야〉 남상미
이제 '배우'로 불리고 싶은 열망 소녀
- 40 파워FM 〈정지영의 스위트 뮤직박스〉 방송 5주년
이 밤, 나를 잠들게 하는 달콤함이어...
- 44 일본은 지금
도요타와 올림피아 상징하는 일본경제 부활의 자신감
- 46 이주형의 문화코드
골짜기와 삼류의 전성시대
- 48 은지향의 음악종경
이쯤되면 음악도 액세서리?
- 50 김수현의 공연산책
그의 음악 속에 다시 율트는 희망을 보며
- 52 맛있는 리서치
웰빙이 따로 있나, 잘먹으면 웰빙이지!
- 54 아주 특별한 여행
적지만 많은 뜻을 품은 공간, 답답 소채원
- 57 SBS 미디어넷 하이라이트
골프채널·스포츠채널·드라마플러스
- 58 SBS 골프채널 / 리뷰 〈특별기획-골프산업화 어떻게 하나〉
한국의 국가 경쟁력, 골프산업 활성화로 키우자
- 60 클릭! 인터넷
SBSi & 727 멤버십 소식
- 63 책 속의 방송
책으로 나온 다큐멘터리 〈환경의 역습〉
- 64 TV & 라디오 편성표
10월의 SBS 주간 편성
- 67 10월의 SBS 영화
SBS 영화특급
- 68 시청자가 주인공이다
〈남자가 사랑할 때〉와 〈작은 아씨들〉을 보고

11



- 8 특별기획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사랑했던 기억, 나를 부르는 영원한 속삭임
- 14 예고 / 대하드라마 〈토지〉
우리 문학의 금자탑, 드디어 완결편을 만나다
- 16 창사특집 드라마 〈홍소장의 가을〉
우리는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잃어버린 그 마음...
- 22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로봇의 시대〉
로봇이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온다, 그런데...
- 28 통계 버라이어티쇼 〈아이엠〉
"세상의 모든 평군을 날같이 해부합니다"
- 30 커버스토리 /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유진
어른이 되어서 좋다, 배우가 되어 행복하다
- 34 스포트라이트 / 〈생방송 TV연예〉 새 MC 장신영
"따뜻한 차 한 잔 생각나는 사람이 될래요"
- 36 반갑습니다 / '서양미술 400년전' 큐레이터 다비드 리오
"신과 색이 들려주는 영혼의 노래를 들어보시길..."
- 40 한수진 기자가 만난 사람 / 아나운서 윤현진
"사랑과 공주", 새 시대 아나운서의 표본이 되다
- 44 라디오세상
가을맞이 라디오 새 프로그램 넷
- 48 일본은 지금
일본의 한류비람, 찾던 속 태풍으로 그치지 않는다
- 50 이주형의 문화코드
한글날, '우리말 도사전'을 읽으며 든 생각들
- 52 은지향의 음악종경
오리진과 리메이크, 노래방에서 충돌하다
- 54 김수현의 공연산책
그의 음악 속에 다시 율트는 희망을 보며
- 56 잘먹고 잘 사는 법 / 맛있는 리서치
이 뜨거움이 있어 외로움도 두렵지 않다!
- 58 아주 특별한 여행
역새 산행의 명소, 밀양 재악산
- 61 SBS 미디어넷 하이라이트
골프채널·스포츠채널·드라마플러스
- 62 SBS 스포츠채널 / 2004~2005 프로농구 전망
겨울스포츠의 꽃 프로농구, 올해도 절대강자는 없다
- 64 클릭! 인터넷
SBSi & 727 멤버십 소식
- 67 SBS 아카데미로 오세요
SBS 방송아카데미 제19기 수강생 모집
- 68 TV & 라디오 편성표
11월의 SBS 주간 편성
- 71 11월의 SBS 영화
SBS 영화특급
- 72 시청자가 주인공이다
〈내안의 반란〉과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를 보고

12



- 8 대하드라마 〈토지〉
시련과 질곡의 운명, 그러나 결코 마르지 않는 생명의 힘
- 14 드라마스페셜 〈유리화〉
슬픔으로 남을지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너
- 20 월화드라마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
공부도 사랑도, 뜨겁게 인생을 건다
- 26 제작발표회 / 특별기획 〈불널〉
2005년을 여는 최고의 멜로드라마
- 28 SBS 창사 14주년 기념 글로벌토크
"디지털 시대의 핵심가치는 프론티어 정신"
- 30 특별전시 / 서양미술 400년전(展)
인간과 예술의 조우, 그 벽전 만남을 기다리며
- 34 커버스토리 / 〈유리화〉 이동건
큰 슬픔엔 눈물이 없고 깊은 상처엔 소리가 없다
- 38 스포트라이트 / 〈웃찾사〉 '그런거야' 팀
"우리 정말 뜬 거야, 그런 거야?"
- 42 스타탄생 / 2005 슈퍼모델
세계적인 모델로 향하는 첫 발걸음
- 46 한수진 기자가 만난 사람 / MC 임성훈
"30년이 흘렀어도 나는 여전히 일이 설렌다"
- 50 일본은 지금
일본인의 속명과 같은 '지진예감'
- 52 이주형의 문화코드
나이든다는 것의 편안함에 대하여
- 54 은지향의 음악종경
한 해의 마지막에서 전경옥을 들으며
- 56 잘먹고 잘 사는 법 / 맛있는 리서치
함께 있어 더욱 빛나는 이름이어!
- 58 아주 특별한 여행
낙조와 소나무가 빛어내는 서해안의 운치, 안면도
- 61 SBS 미디어넷 하이라이트
골프채널·스포츠채널·드라마플러스
- 62 클릭! 인터넷
SBSi & 727 멤버십 소식
- 65 12월의 SBS 영화
SBS 영화특급
- 66 TV & 라디오 편성표
11월의 SBS 주간 편성
- 69 예고 / 2005 신년특집 드라마 〈새 사랑 토함이〉
절망은 희망의 또다른 이름입니다
- 70 Index
(SBS 매거진) 2004년 목차